

# GLOBAL HUF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MAGAZINE

2019 SPRING Vol. 103

## Cover Story

글로벌을 준공

## Special Theme

HUFS 65주년, 강한 외대로  
가는 자부심의 HUFStory

## HUFS Talk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 HUFS Topic

김인철 총장,  
러시아 푸시킨 메달 수훈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를 융복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죠”  
노아과 87학번 장일범 동문 클래식 음악평론가

“세계의 공통 언어인  
예술을 이해하려면 HUFS에서 배운  
문화융복합의 힘이 필요하죠”  
그리스·불가리아학과 18학번 윤재호 학생 홍보대사



# Come to HUFS Meet the World

한국외국어대학교는 다양한 예술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글로벌 융복합 교육으로  
내일을 행복하게 살아갈 당당한 인재를 길러냅니다



\* 전 세계 94개국 757개 대학/기관과 교류

입학안내  
02-2173-2500 / <https://adm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Global HUFS 2019 SPRING Vol. 103

HUFS 65주년,  
강한 외대로 가는 자부심의 HUFStory

### SPECIAL THEME

- 02 **Cover Story** 글로벌홀 준공
- 06 **Special Theme** HUFS 65주년, 강한 외대로 가는 자부심의 HUFStory
- 12 **HUFS Interview** 온 지혜를 모아 인류무형문화유산을 지키겠습니다 박상미 국제학부 교수  
세계인의 '시크릿 가든'이 되는 그날까지 성주엽 일본어통번역 85  
난민이 '우리'가 되는 사회를 꿈꾸다  
김준형 아랍어통번역학 13 / 김유한 아랍어통번역학 14 / 주기환 국제지역대학원 중동학과 19
- 18 **HUFS Talk**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 HUFS가 준비하는 미래 교육  
김용현 사범대학 교수 / 오유경 교육선진화센터 연구원 / 박소혜 혁신융합전공 학생
- 22 **Global Memoirs** HUFS TO THE WORLD 팩트'책'크 문화탐방대 참가기 홍익기 교재시은 팀장 스페인어 14
- 24 **I am HUFS** 소통과 화합, 그 30년의 울림 김다운 흡스필(Hufs Phil) 단장 경제학전공 18
- 26 **Global Issue** 문재인 정부와 '미세먼지 외교' 김성휘 머니투데이 정치부 기자 노아과 97

### HUFS NEWS

- 30 **HUFS Topics** 2019 QS 세계대학평가 학문 주제별 평가에서 상위권 유지  
김인철 총장, 러시아 푸시킨 메달 수훈  
HUFS글로벌봉사단, 2018 동계 해외봉사활동  
아랍어과 재학생, '카타르 2019 세계 대학생 아랍어 토론대회' 수상
- 34 **HUFS Today**
- 39 **HUFS Academies**
- 42 **HUFS Professors**
- 44 **HUFS Institutes**
- 46 **HUFS Books**
- 48 **CUFS News**

### ALUMNI & DONATION

- 50 **HUFS Alumni**
- 53 **HUFS Donation**



## 글로벌홀 준공

HUFS 서울캠퍼스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글로벌홀은 지난 2015년 우리은행으로부터 동대문구 이문동 지점의 토지를 기부받아 그 자리에 학생을 위한 기숙사 등이 마련된 건물을 세운 것이다. 지하 2층부터 지상 16층까지 연 면적 2,100평 규모로 지어졌다. 사실 서울 지역에 캠퍼스를 둔 대학교에서 기숙사를 새로 짓는 일이 쉽지는 않다. 예산이 있거나 부지가 캠퍼스 안에 있어도 인근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복잡한 규제 조항과 조레가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홀 준공은 이런 여러 한계와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라 더욱 의미 있다.

기숙사는 지상 4~16층까지 13개 층에 들어섰으며, 2인 1실로 모두 39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글로벌홀에는 기숙사뿐 아니라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상업시설, 공유 공간 등 다양한 목적의 공간이 함께 마련됐다. 지하층에는 휴게실과 세탁실, 다목적 창고, 근린생활 시설 등이 있다. 지상 1~3층에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행정실, 작은 도서관 등이 있으며, 특히 지상 2층에 자리한 작은 도서관은 기숙사생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도 있다. 이곳에서는 동대문구청과 함께 선보이는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초·중등 학생과 외대 재학 중인 학생 간의 어학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 Cover Story

글로벌홀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만족도는 무척 높은 편이다. 학생들은 무엇보다 1단계 출입구 스피드 게이트, 2단계 층별 카드 게이트, 3단계 기숙사 개별실 카드키로 이뤄진 3단계 출입 통제 시스템 덕분에 안전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400만 화소 고화질 CCTV 80여 대도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큰 몫을 차지한다. 또한 학생들은 기숙사 등의 시설이 고급스럽고 깔끔해 언제나 기분 좋게 머물 수 있다고 말한다. 침대 옆에 스마트폰을 충전하거나 책 등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좋고, 행거 윗부분 등 데드 스페이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한 점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 HUFS 글로벌홀 층별 소개

- 지상 4~16층 기숙사 195실(2인 1실 390명 수용)
- 지상 3층 근린 생활 시설, 업무 시설(행정실)
- 지상 1~2층 로비, 근린 생활 시설, 작은 도서관
- 지하 1~2층 세탁실, 휴게실, 관리실



# HUFS 65주년, 강한 외대로 가는 자부심의 HUFStory

2019년은 한국외대가 개교 65주년을 맞이한 해다.

외국어 및 지역학에 기반을 둔 한국외대가 글로벌 융복합 교육의 산실로 거듭나기까지,

지금의 한국외대를 있게 한 굵직굵직한 스토리를 전한다.

## HUFS, 세계가 인정하는 미래형 글로벌 대학이 되기까지

1954년 진리·평화·창조의 창학 정신을 바탕으로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한국외대. 그로부터 65년이 지난 지금 한국외대는 몰라볼 정도로 놀라운 발전을 이뤘다. 우선, 글로벌 대학답게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45개 언어 전공을 바탕으로 지역, 정치, 경제, 사회, 문학, 공학 등 다양한 전공과 교양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더불어 세계 94개국 757개의 대학 및 기관과의 교류 협정을 통해 학생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 이 덕분에 국가와 인류 사회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왔음은 이견이 없다.

지금 한국외대는 세계가 인정하는 No.1 글로벌 대학이다. 그렇다고 여기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 한국외대의 고유 가치인 어문·지역학을 기반으로 글로벌 융복합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무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서울캠퍼스 스마트도서관 건립 등 교육 인프라 확장을 통해 학생들이 좀더 머물고 싶은 학교를 구현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확장하고 다양한 해외 교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은 물론이다.



## 세계가 인정한 No.1 글로벌 대학

한국외대를 두고 '글로벌 외대' '국제화 1위 대학'이라 말하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그만큼 글로벌 교육에 있어 독보적인 전통이 깊기 때문이다. 이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수치로 입증됐기 때문에 더욱 공신력 있다. 한국외대는 'QS 세계대학평가'에서 3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해 2018년 국내 종합대학 8위를 차지했다. 또한 인문/예술 분야 국내 부문에서 현대언어학 3위, 언어학 3위, 영어영문학 4위를 기록했고, 전체적으로 국내 5위에 올라 세계 속의 글로벌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했다.

## 글로벌 융복합 교육의 산실

한국외대는 다른 대학보다 더 일찍부터 세계적 교육의 흐름인 융복합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외대의 글로벌 융복합 교육은 LD(Language & Diplomacy)학부와 LT(Language & Trade)학부, GBT(Global Business & Technology)학부, 바이오메디컬공학부, 중국외교통상부, 융합일본지역학부·프랑스어학부, 컴퓨터·전자시스템공학부 같은 융복합 학과와 여러 학술 단체에서 이뤄진다. 또한 캠퍼스 통합으로 이중 전공과 연계 전공이 가능해지면서 학생들은 전공·학부 경계를 넘나드는 융복합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외교통상 전문가 양성소

한국외대가 외교통상 전문가 양성소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에 지난 2014년에 신설된 LD(Language & Diplomacy)학부와 2015년에 신설된 LT(Language & Trade)학부가 더해지면서 그 명성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LD학부는 국내 최초 국립외교원 진출을 위한 외교 분야 전문 지식 교육 학부로, 외교관이나 국제기구로 진출할 인재를 양성한다. LT학부는 외국어와 통상 전문 지식으로 무장한 통상직 고위 공무원 양성 학부로, 통상직 고위 공무원에서부터 각종 기업의 국제 업무 파트, 외국계 기업을 비롯한 글로벌 비즈니스 분야 등에 진출할 통상 전문가를 양성한다.

## 취업 걱정 없는 특수외국어과

한국외대 특수어과는 취업률이 높아 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블루오션 학과'로 각광받는다. 특수어과 취업률이 공대 부럽지 않은 수준임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특수어 전공자에게는 전략 지역 전문가 '아너스 프로그램'이 혜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더욱 주목할 만하다. 아너스 프로그램은 해당 국가에서 한 학기는 해외 연수를, 한 학기는 인턴 실습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 덕분에 취업 시장에서 한국외대 졸업생들이 차별화된 우위를 선점한다고 평가받는다.

## 세계 정상 발길이 이어지는 곳

한국외대만큼 외국 정상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학도 드물다. 1975년 우루과이의 워싱턴 버트만 전 대통령의 방문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미국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방문이 있었고 헝가리, 폴란드, 몽골, 포르투갈,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문이 이어졌다. 그외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외무부 장관이나 차관, 총리, 상원의장, 국회의장 등의 방문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이뤄졌다. 이로써 글로벌 외대의 명성을 다시 한번 제감할 수 있다.

## 코어사업 등 국가 지원 사업 수행

한국외대는 국가 지원 사업과 관련된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국가 대표 교육 전문가'로서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인문학을 육성하는 동시에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인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에 선정된 것과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이 선정한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이다. 이로써 한국외대는 외국어 및 특수외국어, 어문학 및 지역의 고유 가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 끊임없는 교육 인프라 확충

한국외대의 글로벌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이 하나씩 결실을 맺고 있다. 그중 글로벌캠퍼스 HUFS Dorm 제1기숙사 리모델링이 잘 마무리돼 학생들이 만족스럽게 생활하고 있으며, 서울캠퍼스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및 다양한 시설을 갖춘 글로벌홀이 최근 성공적으로 준공돼 눈길을 끈다. 또한 서울캠퍼스 스마트도서관 리모델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끊임없는 교육 인프라 확충이 한국외대의 미래를 더욱 밝게 비춘다.

# H

# U



## HUFS INTERVIEW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심사기구 신입의장  
박상미 국제학부 교수

제주 '생각하는 정원'  
성주엽 일본어통번역 85

난민 동화책 「어떤 생일을 보냈니?」 출간,  
대학생 난민 프로젝트팀 '난쏘공'

김준형 아랍어통번역학 13  
김유한 아랍어통번역학 14  
주기환 국제지역대학원 중동학과 19



# F

# S

## 온 지혜를 모아 인류무형문화유산을 지키겠습니다



**박상미 국제학부 교수는 20여 년 넘게 유네스코(UNESCO)를 중심으로 문화유산 관련 일을 해왔다. 그런 그가 최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심사기구 신임의장에 선출됐다. '한국인 최초이자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은 그의 행보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심사기구 신임의장  
박상미** 국제학부 교수

- **한국인 최초이자 여성 최초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심사기구 신임의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그동안 노력해 온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쁩니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인, 그리고 여성으로서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기분 좋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심사기구 의장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문화유산을 보호해 나갈지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뿐 아니라 모든 심사위원의 지혜를 모아 인류 공동자산인 무형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 **오랜 기간 국내외에서 문화재 관련 업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심사기구에서는 지난해부터 심사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문화유산 관련 일을 한 지는 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단에서 일을 한 지도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해 한 분야에서 매진해왔습니다. 그동안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단에서의 많은 지원이 없었다면 이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 기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심사기구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소멸 위기에 처한 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을 위해 가치 있고 독창적인 구전과 무형유산을 선정

- **우리나라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는 종묘 제례 및 종묘 제례악, 강릉단오제, 강강술래, 택견, 아리랑, 김장문화, 제주해녀문화 등이 있습니다. 지난해 말 남북한 씨름 공동 등재는 문화를 통한 소통과 평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좋은 예입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심사기구 신임의장으로서 활동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심사기구 의장은 올 해 동안 열릴 세 차례 사회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52건의 등재 신청서를 심사해 12월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문과 총평을 발표합니다. 임기를 마치는 올 12월까지 의장의 역할을 균형감 있고 현명하게 수행하고 싶습니다. 의장 역할 수행 후에도 심사위원으로서 2년 동안 임기가 더 남는데, 전문성을 발휘해 심사위원 역할도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로서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기 위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좋아하고 잘 하는 일을 찾는데 시간과 노력을 최대한 투자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 '좋은 일'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고, 인류에게 도움되고 존경받는 일을 찾아야 기쁘게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좋아한다, 잘한다, 도움된다 이 세 가지가 일치하는 것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또 화려하거나 중요한 역할만이 국제적 업무가 아니라는 내용도 곧잘 강조합

- **국내외를 막론하고 각 분야에서 한국외대인이 남다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외대인의 원동력은 다른 이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는 용기와 역량에 있습니다. 정형화된 길을 답습하기보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힘이 외대인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모험과 도전 정신은 경제, 기술 등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살아남아 성공하는 외대인의 잠재력입니다.
- **앞으로 활동 계획을 들려주세요.**  
외부 활동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의 역할에 도움이 되게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유네스코 활동과 경험 등을 강의 시간에 실시간으로 전달하려 노력하며 학생들에게 좀더 현장감 있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 한국문화재단과 유네스코 관련 두 곳의 기관에 인턴십을 연계할 수 있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수로서 학부생 단계부터 학생들이 조금씩 커 나가는데, 순간순간 필요한 조언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주 한경면에 자리한 '생각하는 정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손꼽힌다.**

**50여 년 전 '세계 최고의 정원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성범영 원장이 처음 만들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정원을 가꾸는 성주엽 동문이 전하는 대를 이은 나무 사랑 이야기가 흥미롭다.**

● 생각하는 정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곳인지 소개해주세요.   
생각하는 정원은 국가가 지정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간 정원으로 부친인 농부 성범영이 1968년부터 제주도 한경면 저지리의 황무지를 개척해 만든 창조적 정원입니다. 1만 3천 평 규모의 대지에 7개의 소정원이 있고, 오름과 잔디광장을 중심으로 1백여 종의 수종과 2,000여 점의 분재와 정원수, 수석과 괴석 작품이 있습니다. 창조와 예술, 철학이 융합된 정원으로 국제적 탐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생각하는 정원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나무에 대한 애정과 열정 하나로 황무지를 개간하여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기까지 그 집념과 강인한 정신력을 높이 사주신 것이라 봅니다. 밤조차 달빛에 의지해 돌을 다듬으며 살아온 반세기의 세월을 두고 중국에서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한국인의 정신이라고 교과서에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영 원장은 가장 좋은 나무와 괴석을 제주의 오름 형상의 잔디언덕을 배경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나무마다 본연의 개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예술적 감각과 기술로 나무의 건강과 미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밖에 점심뷔페와 카페도 성범영 원장이 정원에 적용한 정신을 기본으로 합니다. 뷔페에서는 가장 신선하고 좋은 원재료를 선택하고 자연의 맛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최소한의 조리만 합니다. 카페에

서는 정원에서 직접 로스팅한 프리미엄 스페셜티 커피인 세계 3대 커피를 오리지널 싱글빈으로 마실 수 있습니다. 테마 파티가 열리는 시크릿 가든은 '세계 최고의 베뉴(Venue)'이며 '대한민국 코리아 유니크 베뉴 20곳' 중 한 곳입니다.

● 초창기 수많은 역경과 1997년 IMF 당시 경영상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지금 같은 정원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입니까?

성범영 원장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50년에 걸쳐 불철주야 정원을 만들어왔습니다. 일하다 다쳐 수차례 수술을 받았고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등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셨을까' 하고 수없이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부친께서 그 어려운 과정을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제주를 향한, 나무를 향한, 대한민국을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정원 일을 하면서 여러 어려움에 부딪히는데, 그때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의 원천은 나무입니다. 나무가 저를 위로하고 제게 새로운 생각과 깨달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 30여 년 동안 나무를 관찰하고 돌봐온 이야기를 「생각하는 나무이야기」 「나무편지로 출간하셨습니다. 책을 통해 말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나무이야기」 「나무편지는 힘들 때마다 썼던 이야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저는 돌과 나무에 세상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무로부터 배운 삶의 지혜와 교훈을 함

**제주 '생각하는 정원'**

**성주엽 일본어동번역 85**

께 나누고 싶어 펴낸 책입니다. 이어 세 번째 책 「분재인문학」도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기쁠 때는 깨달았을 때라는데, 나무가 제게 깨달음을 줍니다. '진정한 정원사는 정원을 영혼을 깨우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말을 좋아해 늘 가슴에 새깁니다.

● '세계 최고의 정원'을 만들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들려주세요.

지친 영혼이 어머니 마음에 안긴 것처럼, 찾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이 정원에서 오감으로 느끼고 영감을 얻어 삶의 활력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인 거죠. 앞으로 갤러리와 체험학습장, 자연 관련 서적을 판매하는 서점, 한중문화관 같은 시설을 단계적으로 선보일 것입니다. 또한 한국 정원 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 국내외 각 분야에서 외대인이 남다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30년을 제주에서 지내면서 많은 것과 떨어져 지냈습니다. 책 출간으로 대학교와 전공을 기재하면서 모교와 동문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모교와 동문은 평생 함께 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외대인이 남다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 중 하나는 동문 네트워크입니다. 전 세계에 뻗어 있는 동문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면 외대인이 지금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 세계인의 '시크릿 가든'이 되는 그날까지



\* 중국 9학년 역사와 사회 교과서에 생각하는 정원을 조성한 분투 여정과 문화적 가치를 한국 민족정신 양성의 모범으로 소개함.



## 난민이 '우리'가 되는 사회를 꿈꾸다

대학생 청년 프로젝트팀 '난민들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은 멀고 어렵게 느껴졌던 난민 문제를  
동화라는 친숙한 미디어로 풀어내며 우리가 품어야 할 생각에 질문을 던진다.  
난민 동화 「어떤 생일을 보냈니?」를 출간한 세 작가, 김준형, 김유한, 주기환을 만났다.

- 대학생 청년 프로젝트팀 '난쓰공(난민들이 쏘아 올린 작은 공)'과 「어떤 생일을 보냈니?」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 '국내 최초의 대학생 난민 프로젝트 팀'입니다. 3년 전 한국장학재단의 '꿈도전단' 공모전을 준비하기 위해 모인 것이 프로젝트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동화책을 통해 난민 문제에 대한 의식을 제고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고, '꿈도전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그 상금으로 그리스 난민 캠프에 방문해 3주 동안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 수림문화재단, 외대 지식출판콘텐츠원의 지원을 받아 「어떤 생일을 보냈니?」 동화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자신의 생일에 마땅히 받아야 할 축하와 사랑을 받는 것조차 사치인 난민 캠프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 그리스에서 보낸 시간과 그곳에서 마주한 경험이 책을 만드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 이번 난민 책 출간은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또한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난민 문제

- 가 어떤 방향으로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 김준형 진로를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난쓰공 프로젝트 이후 꼭 국제 기구가 아니라도 전시나 기획, 콘서트, 책 등을 통해 사회 공헌적인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야를 찾고 있습니다. 난민 문제에 있어 가장 필요한 변화는 사람들이 편견, 프레임 없이 객관적 시각으로 난민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 김유한 책 한 권을 만들어냈다는 성취감이 제겐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제주 난민 문제를 보며 우리나라가 난민 정책에 있어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난민을 선별하고, 난민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 주기환 난민을 바라보는 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난민을 그저 불쌍한, 도와줘야 할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라고 말하는 범주에 넣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난민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해결책입니다.
- 프로젝트 진행과 책 출간 과정에서 느낀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김유한 난민 문제를 동화 안에 담는 과정, 그들의 고난과 어두운 일상을 담담하게 표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NGO에 도움을 구하거나 필요한 인터뷰를 할 때도 퇴짜를 많이 맞았고요.
- 김준형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 작업이다 보니 커

난민 동화책 「어떤 생일을 보냈니?」 출간,  
대학생 난민 프로젝트팀 '난쓰공'  
김준형 아랍어통번역학 13  
김유한 아랍어통번역학 14  
주기환 국제지역대학원 중동학과 19

- 커뮤니케이션과 조율 또한 어려웠습니다. 지원 재단, 출판사, 저희 셋과 그림 작가 등 다양한 입장과 의견 속에서 모두의 생각을 수렴하는 접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주기환 학업과 프로젝트를 병행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프로젝트 초반엔 정말 '땀방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임했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입니까?
- 김준형 이 책의 삽화를 그린 작가와 함께 '난쓰공'을 모체로 해 만든 SITA라는 청년 단체의 활동을 지속하며 소외 계층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의 사회적 기업 운동 캠페인 흐름 중 하나인 비쿰운동을 토대로 미국을 방문한 뒤 관련 책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 김유한 난쓰공 활동을 통해 제 일상과 난민들의 일상간에 큰 온도 차를 느꼈습니다. 제가 가진 온기를 그들에게 조금만이라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세계시민의식홍보), 난민 의료통역 봉사 등의 활동을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난쓰공이라는 단체를 통해 꾸준히 활동할 것입니다.
- 주기환 제3세계에 대한 공부를 계속 이어가는 것, 궁극적으로 한국 안에서 제3세계의 사람들이 일으키는 작용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성과 그것을 생산적 논의로 이끄는 통찰력을 갖는 것이 꿈이자 계획입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 HUFS가 준비하는 미래 교육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으며, 교육 역시 4차 산업혁명의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다.

에듀테크, 무크, 수요자(학습자) 중심의 교육 시스템 등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은 무엇이며,

HUFS가 준비하는 미래 교육은 어떤 것이 있는지 김용련 사범대학 교수와

오유경 교육선진화센터 연구원, 박소혜 혁신융합전공(프랑스어와 공학) 학생이 이야기나눴다.



**김용련**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든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교육이나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학교나 교수, 학생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4차 산업혁명이 주는 메시지를 살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생산성의 증대로 자본주의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성이 증대됨에 따라 생활의 편리가 증대되고 노동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테크노피아'입니다. 테크노피아와 반대되는 개념인 '디스테크노피아' 즉, 기계와 기술이 인간을 지배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이 깊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사람이 지식을 창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며, 이것이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양극화가 심화되면 실업자가 양산되고 잉여 인간이 생길 수 있다는 예측입니다. 이렇게 양극화가 두드러진 상황에서 교육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오유경** 저는 주로 학교에서 교수님과 학생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합니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학교의 지원 업무에 있어 어떻게 변화돼야 하는지를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이제는 교사의 의미가 단순히 지식전달자, 평가자를 넘어 지식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학습자 또한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예전의 학생들이 수동적이었다면 이제는 능동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에서는 학생들에게 창의성을 발휘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선진화센터에서는 이런 새로운 흐름에 발맞춰 어떻게 하면 교수님과 학생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박소혜** 저는 원래 프랑스어를 이중전공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텍스트 분석>이라는 강좌가 있어 문법을 가



김용련 사범대학 교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개인 혼자서 하는 교육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 공부해 시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해서 전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즉, 시너지를 내는 집단지성의 시대인 것입니다. 저는 이 집단지성이 미래 교육의 한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르쳐주는 수업인 줄 알고 신청했는데, 컴퓨터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분석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첫 수업을 듣고 흥미가 생겨 교수님께 어떻게 하면 관련 내용을 더 깊이 배울 수 있는지 여쭙봤습니다. 그때가 3학년 2학기 때였는데 이중전공을 새롭게 바꾸는 것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언어공학과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혁신융합전공을 알게 됐고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 '프랑스어와 공학' 전공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혁신융합전공은 학생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한 뒤 관련학과 학과장님 등 학교 승인을 받은 뒤 전공을 이수하는 신개념 전공 과정입니다. 지난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새롭게 시작된 제도로 혁신융합전공으로 이수하려면 관련 학점 52~64학점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혁신융합전공을 처음 하면서 제 전공인 '프랑스어와 공학'을 설계할 때 아무리 봐도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수님께서 길잡이 역할을 훌륭히 해주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제 입장에서 인공지능이 아무리 선생님 역할을 잘 해준다고 해도 교수(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련** 박소혜 학생이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이 말에 동의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인공지능이 사람의 삶과 교육을 어떻게 압도할지 아직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4차 산업혁명을 처음 이야기했던 클라우스 슈밥 역시 "4차 산업혁명의 변화와 깊이를 가늠하지 못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개인 혼자서 하는 교육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 혼자 공부해 시험 문제를 푸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여럿이 함께해서 전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즉, 시너지를 내는 집단지성의 시대인 것입니다. 저는 이 집단지성이 미래 교육의 한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배움에 있어 '러닝 하우 투 런(Learning

How to Learn)을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법을 배워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닌 낚시하는 법을 알려줘야 하는 시대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는 스스로 찾아서 무언가를 만들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와 상호 작용하지 않는 배움은 의미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대학에서 강의하고 끝나는 수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강의식 수업이 아닌 토론티 수업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토론티 수업만이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와 상호 작용을 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유경**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HUFS가 준비한 미래 교육 시스템 중 하나는 무크입니다. 지난해 11월 글로벌컴퍼스 통번역대학의 <세계 주요 문화와 통번역의 역할> 강좌를 시작으로 코어사업단의 <포 하나의 유럽, 발칸 유럽의 역사 문화 이해>, 특수외국어인 흥교육원의 <태국어 문자와 기초 회화>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두 개의 강좌를 더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른 학교보다 늦은 감이 있지만 늦은 만큼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교육선진화센터에서 우리 대학의 인재상에 맞는 핵심역량 기반의 교육 성장을 위한 '학생 핵심역량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온라인 핵심역량 진단도구 및 직업기초역량 도구, 교양교과와 비교과 핵심역량 매칭 포트폴리오, 통합 상담 지원 등을 통해 학생 스스로 자신의 이력을 관리하고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직 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한데, 이번 기회에 널리 알려져 좀더 많은 학생들이 이 시스템을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소혜** 학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시행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 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건 당



연하고요. 새학기 필수전공 강좌 시간에 수업하기에 앞서 5~10분 정도를 투자해 학교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 학생들에게 간단히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소개를 듣고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찾아보면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으니 간단한 소개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용현** 터놓고 말해서 외대는 자원이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가 고등교육(대학) 시장에서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도전 정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대는 1960~1980년대에는 언어학으로 도전했고 1990년대 들어서는 지역학적으로 도전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죠. 그리고 2019년 현재, 다시 외대만의 도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대의 강점인 도전 정신을 살려 이름만 융합이 아닌 실질적 융합 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소혜 학생의 혁신융합 전공인 '프랑스어와 공학' 같은 것이 바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도전 아닐까요? 앞으로 실효적 융합 교육을 바탕으로 지역학과 교양 강좌 등이 좀더 강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소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코딩이 대세로 떠올랐고, 학생들은 이와 관련해 기본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좀더 세심한 신경을 써서 학생들이 프로그램 언어 하나 정도는 필수 교양으로 들을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흔히 '프로그램 언어는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경험해보니 낯설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이지 익숙해지면 괜찮았습니다. 학교에서 새 시대에 걸맞는 교육 강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고, 1학년 신입생들의 경우 필수교양 과목으로 강좌를 들을 수 있게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가장 중요한 것이 새로운 발상을 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을 위한 창의·인성 경진대회 Better World 아이디어 공작소 등을 더욱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유경 교육선진화센터 연구원

**오유경** 시대에 걸맞는 새 교육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학교가 주기적 교수학습 요구 조사를 통해 교수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학교는 교수와 학생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그에 맞춰 교육 과정을 짜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에 따른 교수학습 지원 서비스 '좋은 수업 만들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가장 중요한 것이 새로운 발상을 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요 기업체 인사 관계자 초청 간담회에서 '다른 대학 출신과 비교할 때 외대 졸업생에게 부족한 부분은?'이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학생들은 창의성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을 위한 창의·인성 경진대회 'Better World 아이디어 공작소' 등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현** 외대는 인프라 측면에서 볼 때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인프라의 부족함을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특화된 교육 내용으로 채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유연학기제 도입을 눈여겨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연학기제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업 일수를 단축해 운영하는 것으로 기존 16주 수업을 8주, 10주 등의 집중이수 형태로 진행합니다. 학생들이 자기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 듣고 싶은 강좌를 원하는 시기에 좀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전공제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듈전공제는 쉽게 말하면 지금 박소혜 학생이 하는 혁신융합전공을 좀더 세분화해서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15학점의 한 세트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수하면 학점을 인정해주는 거죠. 학생들이 좀더 능동적으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면 장학금 제도 역시 조금

씩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대의 강점이 도전인 만큼 도전하는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유경** 새 교육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학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학생들 역시 변화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 시대를 맞아 우리 학생들이 좀더 능동적 자세로 임했다면 좋겠습니다. 학사관리팀의 경우 학기 초가 되면 학부모들의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전화를 한 학부모들은 '우리 딸(아들) 수강 신청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딸이 외국에 나가 있다' '아들이 바빠서 그런다' 등의 이유를 들면서 말합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 나가는 능동적 태도가 학생들에게 더욱 요구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박소혜** 솔직히 취업준비생이라 불안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너무 대기업만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괜찮은 스타트업도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네임밸류만 쫓아가지 말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는 열린 생각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혁신융합전공으로 '프랑스어와 공학'을 하고 있다 보니 주변에서 '그런 전공을 해서 되겠니?' 하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언어공학을 같이 이수한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지인 것이 현실입니다.

**김용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학생들에게는 도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대생은 좀더 나은 일류가 되기 위해 도전해야 합니다. 도전했을 때 일류가 되지, 주어진 대로 하면 이류 또는 삼류가 될 뿐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도전하게끔 판을 깔아 기회를 주고, 학생들은 그 안에서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소혜 혁신융합전공(프랑스어와 공학) 학생, 이력어머 15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코딩이 대세로 떠올랐고, 학생들은 이와 관련해 기본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좀더 세심한 신경을 써서 학생들이 프로그램 언어 하나 정도는 필수 교양으로 들을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HUFS TO THE WORLD 팩트'책'크 문화탐방대 참가기

# 호세 마르티에 대한 쿠바인의 애정과 자부심을 느끼다



‘꼬넥시온’ 흥익기 팀장 스페인어 14

**‘HUFS TO THE WORLD 팩트'책'크 문화탐방대’는 지난해 말 처음으로 모집해 실시한 해외 문화탐방 프로그램이다.**

**해외 작가와 관련된 장소를 탐방해 인물을 탐구하고 해당 국가의 예술, 종교, 문화, 역사 등을 알아봄으로써 인문학과 지역학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꼬넥시온 흥익기 팀장이 호세 마르티의 발자취를 따라 쿠바에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 쿠바의 문학가이자 혁명가, 호세 마르티

카리브해의 아름다운 해안, 형형색색 올드카, 시가, 체 게바라, 미사일, 사회주의. 쿠바라는 국가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 정도다. 미국 바로 아래 위치한 쿠바는 사회주의 국가라는 이유로 많은 경제적, 정치적 제재를 받았다. 그런데 최근 이런 상황이 변하고 있다. 미국과 쿠바는 국교를 정상화했으며, 2016년 버락 오바마 前 미국 대통령은 88년 만에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서 쿠바를 방문했다.

미국과 쿠바가 국교를 정상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쿠바는 한국의 미수 교국이다. 하지만 윤병세 前 외교부 장관은 2015년 국회 업무보고 시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추진을 주요한 외교 목표로 제시한 뒤,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 으로서는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해 쿠바 외교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개최했다. 강경화 現 외교부 장관 역시 지난해 쿠바를 방문해 두 나라 사이의 협력 증진 과 우리 기업의 쿠바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의 이런 적극적 움직임은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한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 가능성이 시사되는 지금, 쿠바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지난해 11월 20일 우리 대학 학생지원팀으로부터 메일 하나를 받았다. ‘팩트 책'크 문화탐방대를 처음으로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다. 프로그램의 취지는 해외 작가의 대표 서적을 읽고 관련 장소를 탐방해 인물을 탐구하며 이를 통해 해당 국가의 예술, 종교, 문화, 역사 등 인문학과 지역학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다.

우리는 쿠바의 문학가이자 혁명가인 호세 마르티가 이 프로그램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다. 쿠바가 라틴아메리카에서 갖는 역사적·문화적 의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쿠바가 저평가되거나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라틴아메리카를 이해하는데 쿠바를 빼놓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

체성에 대한 편견을 배제한 인식 형성이 라틴아메리카 문화 이해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라틴아메리카가 생길 때까지 라틴아메리카 문학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호세 마르티의 신념은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반항을 일으켰다. 그는 언어를 새롭게 재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문화를 끌어내 작품으로 승화했고 라틴아메리카의 독립을 촉진시켰다. 그의 저작물을 통해 19세기 쿠바 사회의 불안정성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볼 수 있고, 쿠바 더 나아가 중남미의 문화, 예술, 역사에 미친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번 팩트책'크 문화탐방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된 계기다.

## 호세 마르티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팩트책'크 문화탐방대로 선발된 덕분에 우리는 쿠바인이 가장 존경하는 독립 혁명가이자 시인인 호세 마르티의 발자취와 그가 남긴 정신적, 물질적 유산을 탐방하기 위해 쿠바를 방문할 수 있었다. 호세 마르티 생가 박물관을 시작으로 그를 기리는 여러 박물관과 기념관, 그가 정립한 쿠바인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멜 거리, 호세 마르티를 이어 독립과 혁명을 주장했던 혁명가의 발자취를 볼 수 있는 혁명 박물관, 침략 전쟁 기념관 등을 견학하며 그의 사상적, 문학적 뿌리를 탐방했다.

생가 박물관은 호세 마르티의 생가 내부를 개조해 만든 곳으로 그가 주고받은 편지나 낙서, 생전에 사용했던 유품 등이 전시돼 있다. 우리는 박물관 견학에 더불어 안내원, 견학 온 쿠바 어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호세 마르티에 대한 현재 쿠바인의 생각이 어떠한지 알아보았다. 견학 당일은 토요일이었는데, 아이를 데리고 박물관을 방문한 가족이 많았다. 아이에게 호세 마르티

가 어떤 인물이었고 왜 중요한 인물인지 설명해주는 부모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박물관에서 만난 한 부모는 쿠바에서는 초등 교육과정에서 호세 마르티의 모든 문학을 가르치고 이를 통해 쿠바의 어린이는 휴머니즘과 지식, 사랑과 정의에 대해 배운다고 이야기했다. 부족한 설명과 부실한 전시물로 호세 마르티의 생애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안에서 만난 어린이와 부모의 호세 마르티 사상에 대한 자부심을 통해 쿠바인에게 호세 마르티가 어떤 인물인지 느낄 수 있었다.

한 건물의 벽에 체 게바라의 모습이 그려진 사진은 쿠바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이미지 중 하나다. 이 건물은 혁명광장에 위치한 내무부 건물로 호세마르티 기념관 바로 앞에 있다. 호세 마르티의 쿠바에서의 위상은 이 장소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호세마르티 기념관은 이름 그대로 호세 마르티의 업적을 칭송하기 위해 세워진 건물로 쿠바에서 상당히 고층에 속하는 건물이다. 호세 마르티 기념관 앞으로는 내무부와 경제부, 국방부 건물이 있고 뒤로는 쿠바 국회가 위치한다. 그중 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호세마르티 기념관과 그의 조각은 쿠바의 과거와 현재를 굽어보는 역할을 한다. 쿠바 정치인들은 체 게바라, 카밀로 시엔푸에고스, 카스트로 형제가 그러했듯 매일 같이 호세 마르티의 시선 아래서 그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 쿠바와 라틴아메리카의 정체성

호세 마르티는 라틴아메리카 정체성 탐색과 국가 정체성 구성에 기초를 제공했다. 그는 ‘우리 아메리카’라는 개념을 통해 북미와는 다른 라틴아메리카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다양성과 혼종을 극복해 조화롭고 예술적 영혼의 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생각이 당대의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은 그가 피지배층인 원주민과 흑인의 문화를 포함한 라틴아메리카의 정체성을 말하기 때문이다. 아멜 거리는 아프리카 문화가 쿠바 문화의 일부분임을 보여주는 장소다. 우리는 아멜 거리에서 이뤄지는 아프로 쿠반 문화 공연을 감상하고 그 속에 담긴 아프리카의 문화와 쿠바만의 문화를 알아보았다. 그 모든 것이 어우러진 것이 바로 쿠바 그 자체의 문화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아멜 거리의 도입부에는 호세 마르티의 흉상과 그의 시구가 적혀 있었다. 노예였던 흑인의 문화를 쿠바의 정체성이라 강조하고, 혼종을 쿠바의 문화로 받아들이고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고 한 그의 사상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피지배 계급의 문화가 쿠바의 주류 문화로 받아들여지기까지 호세 마르티의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었다. 호세 마르티 중앙 연구소는 이름에 걸맞게 호세 마르티에 대한 많은 양의 정보를 갖고 있었다. 심지어 호세 마르티가 저술한 책의 초판본이나 우리나라의 <독립신문>과 비슷한 지위를 갖는 쿠바 신문의 초판본을 직접 읽을 수 있었다. 이 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은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을 정도로 인류학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들이다. 우리는 아침 일찍 한산한 시간에 방문해 안내원에게서 상세하고 친절할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외국 학생들의 호세 마르티에 대한 관심을 좋게 여긴 담당자가 초판본을 꺼내와 직접 만지고 읽을 수 있게 해주었다. 또한 사서는 훗날 한국에서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연락을 하라고 연락처까지 주었다. 호세 마르티에 대한 쿠바인의 애정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 호세 마르티가 남긴 유산

호세 마르티는 문학을 통해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했고 독립에 대한 이상,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옹호, 인본주의적 우주관, 봉사에 대한 윤리를 제시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회적·인종적·지리적 우월성을 내세우는 이들에게 항거하는 이념의 기반이 되고 있다. 우리는 탐방을 통해 호세 마르티 사상의 배경과 근원을 이해할 수 있었다. 호세 마르티는 전 라틴아메리카에 중남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시키고 자긍심을 심어주었다. 또한 다양하고 혼종된 문화 자체를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문화로 정립하고 국가의 방향성을 제시한 인물이다. 쿠바의 완전한 정치적 독립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전체의 경제적, 문화적 종속에 관한 호세 마르티의 사상, 반식민주의 인식은 문학을 통해 모든 라틴아메리카인의 인식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호세 마르티의 문학작품 출판은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적 사건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쿠바인에게 호세 마르티란 어떤 존재냐고 묻는 질문에 피델 카스트로는 “우리 쿠바인들에게 마르티란 그가 묘사한 것처럼 선(善)의 관념입니다”라고 답한 적이 있다. 호세 마르티의 사상과 실천은 중남미인의 독립을 향한 투쟁과 하나의 라틴아메리카라는 개념으로 이어진다. 민족의식을 형성하는데 호세 마르티가 남긴 유산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는 쿠바인, 더 나아가 중남미인의 특성과 국가 정체성을 온전히 인지하게 될 것이다.



## 소통과 화합, 그 30년의 울림

홉스필(Hufs Phil) 단장  
김다은 경제학전공 18



각기 다른 사람이 모여 서로 다른 악기로 하나의 소리를 만드는 일.

오케스트라의 미덕엔 지금 세계에 필요한 조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30여 년 동안 아름다운 선율로 외대의 '소통'과 '화합'을 만들어온 한국외국어대학교 관현악단, 홉스필을 만났다.

am

홉스필의 한 해

홉스필의 한 해는 분주하다. 공식적인 첫 하모니는 봄과 함께 찾아온다. '새봄 연주회'에서 '신입생 환영 연주회'로 이름을 바꾼 올해의 첫 공연은 홉스필의 새 페이지를 써나갈 신입 단원을 만나는 자리이자, 외대에 갓 입학한 새내기를 환영하는 행사이기도 하다. "오늘 열릴 '제31회 신입생환영연주회'에선 솔로 바이올린과 스트링 콰텟이 여는 비발디의 '사계 봄 1악장'부터 퀸의 '보헤미안 랍소디', 히사이시 조의 '인생의 회전목마' 등 클래식, 팝, OST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홉스필 신입 단원뿐 아니라 개강을 기념해 19학번 신입생 모두에게 열린 작은 음악회도. 연주회 후엔 홉스필의 공식적인 공연뿐 아니라 크고 작은 활동, 모임 등을 함께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도 진행합니다." 첫 공연이 끝나면 홉스필은 새 단원과 함께 5월 대동제 기간에 열리는 '잔디광장 버스킹' 특별 공연을 치른다. 방학 기간 내내 정기 연습과 뮤직 캠프 등 꾸준

한 준비를 마친 뒤 9월쯤 가을이 시작되면 홉스필 '정기 연주회'가 찾아온다. "정기 연주회는 홉스필이 선보이는 가장 큰 규모의 오케스트라 공연입니다. 창단 이래 한 해도 빠짐없이 열린 연주회로 홉스필 단원에게 좋아하는 음악에 흠뻑 열중할 수 있는 시간이자, 외대 재학생과 동문에게 클래식, 오케스트라와 좀더 쉽게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관객을 위한 공연뿐 아니라 홉스필 단원이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연주회도 비정기적으로 연다. 올해 11월에 열리는 '향상 연주회'가 그렇다. 이 연주회는 연주자끼리 어떤 형식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만들고 즐기는 소규모 앙상블 공연이다. 그밖에 단원의 관계를 돈독히 다지는 MT, 홈 커밍데이 등도 동아리 활동으로서의 즐거움을 배가시키는 홉스필 고유 행사다.

한국외대 유일의  
오케스트라, 홉스필

한국외국어대학교 관현악단, '홉스필(Hufs Phil)'은 한국외대 재학생으로 구성된 순수 아마추어 관현악단이다. 1988년 '외대 실내악단'으로 창단한 뒤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다양한 기악 연주자가 모인 오케스트라로 확장됐다. 30여 년이라는 역사에 걸맞게 재학생 단원 50여 명, 동문 300여 명이 홉스필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활발히 교류하고 활동한다. 긴 연혁만큼 이력도 화려하다. 지난 2000년 '제24회 전국 대학생 음악경연대회' 동상 수상을 비롯해 교육부 주최 음악 경연대회 다수 수상, 한국외대 개교 60주년 기념으로 오바마홀에서 열린 개교 60주년 기념 음악회 개최 등 안팎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친

다. 정기 공연, 특별 공연뿐 아니라 지난 2012년부터 지역구 청소년을 위한 악기 연주 지도 봉사 등 다채로운 활동을 함께 이어간다. 2019년 홉스필의 31기 단장으로 첫 공연을 앞둔 경제학전공 18학번 김다은 학생은 '홉스필'을 다음과 같은 말로 소개한다. "홉스필은 한국외대의 유일한 관현악단입니다. 봄과 가을에 열리는 정기 연주회를 비롯해 학교 축제, 다른 동아리와의 연합 공연 등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합니다. 경직되고 딱딱한 분위기의 악단이라기보단 전공, 연주 실력 등과 상관없이 음악을 좋아하고, 악기를 연주할 줄 알거나, 또는 악기 연주를 배우고 싶은 이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클래식 음악 동아리에 가깝습니다."

음악과 대학 생활의  
낭만 사이

홉스필의 서른 한번 째 수장, 김다은 단장은 '오케스트라' '관현악단'이라는 수식어를 거창하게 느낄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홉스필은 예전에 악기를 즐겁게 배웠다가 잠시 쉬었던 사람,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플루트, 클라리넷, 오보에, 바순, 트럼펫, 트럼본, 튜바 등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악기를 새롭게 배우고 싶은 사람 등 클래식 음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동아리에서 보유하고 있는 악기를 빌려주거나 팀 안에서 새로운 악기 연주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전문가와의 레슨을 연결해주기도 합니다. 경력 상관없이 단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악기를 처음 배우는 이들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다은 단장은 또 서로 다른 음을 가진 악기가 연주자의 끊임없는 연습과 섬세한 합주로 하나의 음악이 되는 과정, 그 여정에서 연주자만이 오롯이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을 홉스필의 매력으로 꼽는다. "요즘 대학생은 긴 입시 과정을 끝낸 뒤 대학에 왔는데 또 다시 학업, 취업 준비에 치이는 상황에 종종 놓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음악을 즐기거나, 악기를 연주할 기회는 더더욱 없어졌죠. '홉스필'과 같은 동아리 활동이 아니면 순수하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대학 생활의 낭만'을 제대로 느껴보고 싶다면 언제든지 홉스필의 문을 두드리기 바랍니다."

## 문재인 정부와 ‘미세먼지 외교’



김성휘  
노어과 97  
머니투데이 정치부 기자

청명한 파란 하늘. 한국의 대표적 이미지다. 한국외대 이문동 캠퍼스도 그랬다. 새내기로 가득한 3월도, 중간고사에 허덕이던 4월도 아무 때고 올라다보면 파랗게 눈부신 하늘이 늘 거기 있었다. 초미세먼지를 걱정하며 마스크를 쓰는 현실이 그 추억을 밀어내고 있다. 중국 변수가 크게 거론된다. 외교 노력도 당연히 병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 탓만 말고, 국내 요인을 줄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고민은 2017년 대선 때부터 시작했다. 정치부 기자로서 대선은 ‘추위’로 기억된다. 늘 12월이었다. 이번엔 이례적 봄 대선이었다. 따뜻한 반면 복병을 만났으니 그게 미세먼지다. 봄엔 원래 황사가 심했다. 거기에 더해 수년 새 부쩍 걱정이 커진 미세먼지가 화두가 됐다. 숨 쉬는 문제여서 특히 자녀를 둔 부모에게 그 어떤 공약보다 피부에 와닿는 생존과 생명의 이슈가 됐다. 대선주자들도 나섰다. 문 대통령의 미세먼지 30% 감축 약속이 대표적이다.

청와대가 2018년 국민청원에 응답하는 등 집권 후 노력은 계속했지만 근본 원인이 잘 해결 되지 않았다. 2019년 들어 미세먼지에 대한 불만은 한층 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2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단의 미세먼지 대책을 주문했다. 여기서 ‘인공강우, 고압분사, 물청소, 공기필터 정화 또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도 연구·개발해보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미세먼지를 둘러싼 팩트와 국민 체감 사이엔 결코 미세하지 않은 차이가 있다. 이게 정책 결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준다. 미세먼지 생성량이 해가 갈수록 늘어난 건 아니다.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줄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바람이 없고 대기가 정체할 때 먼지가 오래 머물게 된다. 미세먼지가 많이 형성돼도 강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날아가고 씻겨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느낌이 줄어든다. 정부로선 ‘난감한 팩트’다. 분명히 데이터는 개선을 가리키는데, 대기 정체로 고농도인 날이 많아져 국민 고통은 크다. ‘사실은 대기 질이 개선됐다고 외쳐봤자 국민 정서와 동떨어졌다’는 지적만 받는다.

지난 1월 25일, 서해 바다에서 열린 인공강우 실험도 의미와 한계를 동시에 지닌다. 만약 성공했다 해도 물방울로 미세먼지를 씻어내리는 일이지, 미세먼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는 대책은 아니다.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뭐라도 해본다는 도전만큼은 인정하지만 말이다. 각급 학교의 공기청정기 설치 확대도 원인 치료가 아닌 대증요법이다. 이에 미세먼지 대책은 종합적이면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대중국 외교를 보자. 여론을 의식하면 일순위 대책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게 다 중국 탓’이란 논리는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실제 영향이 얼마나 논란이 있다. 중국은 이미 베이징 등의 미세먼지를 크게 줄이고 있다. 무엇보다 자꾸 외부 요인을 쳐다보면 국내 요인 줄이기에 소홀해질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요인을 줄이는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아야 한다. 발전원의 석탄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여야 한다. 생활 속에선 도심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 실태를 무시할 수 없다. 당장 될 일은 아니지만 자동차 생활도 크게 달라져야 한다. 몇 년이 걸리든 경유차가 사라져야 한다면 정부와 학계, 업계가 그 대안도 찾아야 한다. 외교 노력과 국제 공조를 아예 말자는 건 아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미세먼지 대책 범국가기구 위원장을 맡는다. 앞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 설립추진단’이 4월 발족했는데 반 전 총장의 측근이자 평생 외교관인 김숙 전 유엔 대사, 참여정부 환경부 차관을 지낸 안병욱 전 차관이 추진단 공동 단장이다. 이런 인적 구성은 문재인 정부가 국내 요인 해소뿐 아니라 외교적 노력도 중요하게 본다는 의미다.

다시 파란 하늘을 떠올린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 모습을 되찾으면 좋겠다. 한 사람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미세먼지 대책은 종합적이면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게 다 중국 탓'이란 논리는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 자꾸 외부 요인을 쳐다보면 국내 요인 줄이기에 소홀해질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요인을 줄이는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아야 한다.



H

U

F

S

# HUFS NEWS

- [HUFS Topics](#)
- [HUFS Today](#)
- [HUFS Academies](#)
- [HUFS Professors](#)
- [HUFS Institutes](#)
- [HUFS Books](#)
- [CUFS News](#)

## 2019 QS 세계대학평가 학문 주제별 평가에서 상위권 유지 - 현대언어학, 언어학 국내 3위, 영어영문학 국내 4위 -



지난 2월 26일(화) 발표된 '2019 QS 세계대학평가 학문 주제별 평가'에서 우리 대학이 상위권을 유지하며 선도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QS 세계대학평가 학문 주제별 평가란 영국의 대학 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48개 학과 500위까지의 대학 순위를 발표한 것을 말한다. 우리 대학은 현대언어학과 언어학 분야에서 국내 3위를 차지했고, 영어영문학 분야에서 국내 4위를 차지해 언어와 외국어 기반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널리 알렸다.

## 김인철 총장, 러시아 푸시킨 메달 수훈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은 지난해 12월 21일(금) 서울 주한러시아대사관에서 러시아 정부가 수여하는 푸시킨 메달을 받았다. 푸시킨 메달은 해외에서 러시아의 학술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러시아 대통령이 수여하는 뜻깊은 메달이다. 우리 대학은 65년 동안 러시아 어문학 교육에 기여하는 한편 부설 러시아연구소를 통해 러시아 관련 연구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했다. 이번 푸시킨 메달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연방 대통령을 대신해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가 수여했다.

## HUFS글로벌봉사단, 2018 동계 해외봉사활동



우리 대학 서울캠퍼스 2018학년도 동계 HUFS글로벌봉사단이 지난 1월 19일(토)~27일(일)까지 태국 매솿에서 해외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태국 매솿 버웨끌라 학교에 파견된 봉사단원 16명은 현지 학생을 대상으로 미술, 과학, 음악 등의 교육 봉사활동을 진행했고 태권도, 탈춤, K-POP 같은 다양한 문화 공연으로 현지 주민에게 한류 문화를 알렸다. 또한 봉사단원은 우리 대학 태국동문회에서 주최한 동문의 밤 행사에도 참가했다. 지난 3월 19일(화)에는 서울캠퍼스 교수회관 강연실에서 HUFS글로벌봉사단 해단식을 가졌다.

## 아랍어과 재학생, '카타르 2019 세계 대학생 아랍어 토론대회' 수상



우리 대학 아랍어과는 지난 3월 15일(금)~20일(수)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2019 세계 대학생 아랍어 토론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했다. 아랍어과 이상우, 박석한, 오현석, 김민지 학생으로 구성된 우리 대학팀은 전 세계 50개국 110여 개 팀이 참가한 본 대회에서 우수한 아랍어 실력과 논리력으로 3승을 달성했고, 오현석 학생은 비 아랍인 부문 베스트스피커 상을 수상했다. 우리 대학 아랍어과 윤은경 교수는 한국 대표팀 코치 자격으로 참가했으며, 토론대회 예선전과 결승전 심사까지 맡아 대회 주최 측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국제청소년리더 교류지원사업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우리 대학이 지난해 11월 30일(금)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주최 '2018 국제청소년리더 교류지원사업 결과보고회'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번 행사에 참여했던 참가자 중 박상희(영어학 전공)와 상엽(국어국문학) 학생은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권현선(철학과)과 이월명(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번역 전공)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또한 우리 대학의 "공감(共感)하며 공존(共存)하는 국제 청소년 리더" 프로그램이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장관상을 받았다.



**2018년 동계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해외교류프로그램 발대식**

제3차년도(2018년) 우리 대학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글로벌 지역학 모델 해외 교류 지원 프로그램 파견 학생(해외 현장실습(인턴십), 해외 현지조사, 해외 취취업 공모전 등 3개 프로그램 참여자 140명) 발대식이 지난해 12월 15일(토) 서울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박노호 교수, 권기수 교수, 김동환 교수, 유진일 교수 등 참여학과 교수와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 관련 교수, 파견 학생 등 110여 명의 교수·학생이 참석했고, 2018학년도 하계 방학 중 해외 프로그램 결과 보고 우수 학생에 대한 시상식, 성과 발표, 파견 학생 안전교육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진로취업지원센터, 2018 글로벌 해외진출 설명회**

우리 대학 진로취업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 6일(목) 서울캠퍼스 미네르바콤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2018 글로벌 해외진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제기구 취업 전문가,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대우세계경영 연구회,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외교부, 글로벌 다국적기업 현직자 등이 참여해 해외 인턴십, 해외 취업, 국제기구 취업 전략, 글로벌 커리어 개발 전략 등 다양한 해외 진출에 관한 특강을 진행했다. 설명회장 외부에는 우리 대학 학생의 해외 현장실습(인턴십) 수기 공모 수상작 14점을 전시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해외 인턴십 사례를 공유했다.



**2018학년도 2학기 'Hufs to the World-팩트'체크 문화탐방대 발대식**

우리 대학 2018학년도 2학기 'Hufs to the World-팩트'체크 문화탐방대 발대식이 지난해 12월 27일(목) 서울캠퍼스 미네르바 콤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병철 학생·인재개발처장(서울), 안중현 제52대 총학생회장장과 치열한 경쟁을 거쳐 최종 선발된 문화탐방대 10개 팀 40명의 학생이 참석했다. 우리 대학 재학생으로 구성된 탐방대는 대문호의 대표 서적을 읽고 작품 속 관련 장소 및 인물 탐방을 통해 인문학과 글로벌 지역학 역량을 함양하게 된다.



**김범준 동문(카페 펠리스 대표), 기말고사 응원 위해 커피 기부**

우리 대학 김범준 동문(신방과 85학번)은 지난해 12월 12일(수) 학생들의 기말고사를 응원하기 위해 커피(아메리카노) 스틱형 3천400개를 지원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를 통해 지원된 커피는 기말고사 기간 중 국제학사 열람실에 비치됐으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김범준 동문은 '카페 펠리스' 커피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익금 일부를 '국경없는의사회'를 통해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하고 있다.



**2019년도 신년 하례식 개최**

지난 1월 2일(수) 우리 대학 서울캠퍼스 애경홀에서 '2019년도 신년 하례식'이 개최됐다. 이승용 행정지원처장(서울캠퍼스)의 사회로 진행된 신년 하례식은 김중철 이사장, 김인철 총장, 민동석 총동문회장의 신년사와 함께 참석자 전원의 교가 제창으로 마무리됐다. 김인철 총장은 "학문 시장 수요에 맞는 학제와 교과과정 개편을 통해 외대의 고유 가치를 타 학문 분야와 엮어내는 융복합학의 지평을 열어나가고, 양 캠퍼스의 특성에 맞도록 학과 간 통합을 연계한 학사 제도의 효율성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신년 하례식에는 동원육영회 법인 이사과 교수, 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제23기 KOTRA 해외무역관 현장실습 발대식**

지난 1월 11일(금) 우리 대학 서울캠퍼스 대학원 BRICs 문화관에서 진로취업지원센터 주관으로 '제23기 KOTRA 해외무역관 현장실습 발대식'을 개최했다. 김미자 진로취업지원센터 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발대식은 임소라 진로취업지원센터장의 코트라 현장실습 추진 현황 보고, 김현택 대외부총장의 격려사, 제23기 KOTRA 현장 실습생 대표 정상균 학생(독일어과 13, 원현 무역관)의 선서, 대외부총장의 현장 실습생 대표에 대한 외대 배지 패용 순으로 진행됐다. 발대식을 가진 제23기 KOTRA 해외무역관 현장 실습생 63명은 41개국 54개 무역관으로 파견될 예정이다.



**2019학년도 학위수여식**

2019년 학위수여식이 지난 2월 22일(금)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에서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됐다. 서울캠퍼스 오바마홀과 글로벌캠퍼스 백련관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된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2천220명, 석사 493명, 박사 41명 등 모두 2천754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다. 김인철 총장, 민동석 총동문회장과 교무위원은 양 캠퍼스에서 진행된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졸업생에게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했다. 이날 졸업식장에는 가족, 친지, 선후배 등이 축하의 자리를 함께했다.



**제6회 외대재직직원장학금(씨앗) 수여식**

우리 대학 외대재직직원장학금(씨앗) 제6회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1월 11일(금) 서울 캠퍼스 법학관 402호에서 열렸다. 지난 학기에 이어 이번 수여식에서도 4명(서울캠퍼스 2명, 글로벌캠퍼스 2명)의 학생에게 각각 2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등록금 지원이라는 장학금 본연의 취지를 살리되 학업 성적은 물론 봉사 활동과 다양한 교내외 활동 참여도를 반영해 장학생을 선발했다. 이날 수여식에 참여한 직원들은 앞으로 더 많고 다양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외대 직원들의 격려와 지원을 부탁했다.



**GTEP 사업단, 2018 말레이시아 국제식품박람회 및 대한민국 뷰티박람회 참가**

우리 대학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GTEP) 학생들이 지난해 6월과 10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2018 말레이시아 국제식품박람회(이하 MIFB)'와 '2018 대한민국 뷰티박람회'에 참가했다. 2018 MIFB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업체가 참여하는 동남아시아 최대 식품 박람회 중 하나로 식품업체뿐만 아니라 식자재, 주방기구 업체 등 식품 관련 업체가 다수 참여한다. 2018 대한민국 뷰티박람회는 킨텍스 및 코트라에서 주관하는 전시회로 전 세계 38개국, 430개 이상의 국내 및 해외업체가 참여하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뷰티 박람회 중 하나다.



**2019학년도 입학식**

지난 2월 27일(수) '2019학년도 한국외대 신입생 입학식' 행사를 서울캠퍼스 오바마 홀에서 개최했다. 김봉철 서울캠퍼스 학생·인재개발처장의 사회로 기수단 입장, 개회와 국민의례에 이어 입학 허가 선언, 신입생 선서, 학교 배지 수여, 김인철 총장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인철 총장은 축사를 통해 3천921명의 신입생에게 "글로벌 인재 양성의 산실" '해가 지지 않는 대학'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새 가족이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게 최선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9학년도 제1학기 신입교원 임명장 수여식 및 오리엔테이션 개최**

지난 2월 28일(목) 우리 대학 서울캠퍼스에서 2019학년도 제1학기 신입교원 임명장 수여식 및 오리엔테이션이 개최됐다. 김중철 이사장은 2019학년도 제1학기 신규 임용 교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 연구 및 대학 발전에 더욱 매진해주시기를 당부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김인철 총장, 나민구 서울캠퍼스 교무처장, 전종섭 글로벌캠퍼스 교무처장이 함께했다.



**LD-LT학부, '제2회 LD & LT연합 학술제' 행사**

우리 대학 LD학부와 LT학부는 지난해 11월 29일(목) '대한민국의 대외 도전 과제와 극복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2회 LD & LT 연합 학술제-DONUT' 행사를 개최했다.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우리나라 대북 정책, 난민 정책 분석 등 심도 깊은 학술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모두 80여 명이 참여한 이 행사에서는 우수 발표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으며, 두 학부의 돈독한 학술적 교류와 발전을 기약했다.



**스페인어과, 스페인어권 대사 초청 강의**

우리 대학 스페인어과(학과장 김경희)는 아올라 세르반테스와 공동 주관으로 '발전 위한 문화적 가치'라는 주제로 스페인어권 대사 초청 콜로키움을 연속 개최한다. 이번 학기를 시작으로 학기마다 2개국 이상의 대사가 연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22일(목) 서울캠퍼스 본관에서는 오스카 에레라 길버트 주한 에콰도르 대사 강연이 있었고, 12월 28일(금) 서울캠퍼스 대학원 BRICs 국제포럼장에서는 허벌트 에스투아르도 메네세스 코로나도 주한 과테말라 대사 강연이 있었다.



**아랍어과, 아랍학술주간행사 실시**

우리 대학 아랍어과(학과장 윤은경)는 주한 사우디아라비아문화원, 사우디아라비아 고등교육부 산하 캅압둘라 본 압둘아지즈 국제아랍어센터와 공동으로 지난해 11월 26일(월)~30일(금)까지 아랍학술주간행사를 개최했다. 국내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 고등교육부 산하 기관과 공동으로 1주일 동안 진행한 이번 행사에는 매일 70여 명의 교·강사진과 학생들의 열띤 참여 속에 외국어로서의 아랍어 교수법 워크숍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아랍어의 효율적 학습 방법 등에 대한 특강과 세미나가 이어졌다.



**통번역대학원, '중남미 보건의료산업 및 통역의 이해' 교육 과정 실시**

우리 대학 통번역대학원(원장 김한식) 한서과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공동으로 지난 12월 20일(목) 국제관 503호에서 '중남미 보건의료산업 및 통역의 이해'라는 주제로 의료 통역 교육 과정을 실시했다. 통번역대학원 한서과 교수와 재학생 30여 명이 수료했으며, 참석자들은 향후 원격 의료, 신약 개발 및 의약 기술 진출 분야에서 한국어-스페인어 의료통역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EICC학과, '제6회 전국 번역학 전공 대학원생 심포지엄'**

'제6회 전국 번역학 전공 대학원생 심포지엄'이 지난 1월 9일(수) 우리 대학 일반대학원 BRICs 국제포럼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EICC학과, 일반대학원 영어번역학과, 번역학교육연구센터가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CORE 대학인문역량강화 사업단 기초학문심화 모델의 후원을 받아 개최했다. 올해 행사에는 50여 명의 번역학 전공 교강사 및 석박사 과정생, 번역학 연구에 관심 있는 영어대 학부생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영미문화학과, 맨 부커상 수상자 Deborah Smith의 코어(CORE) 특강**

맨 부커상 수상자인 데보라 스미스의 'Translation's Feminist Frontlines'을 주제로 한 강연이 지난 1월 22일(수) 우리 대학 일반대학원 BRICs 국제포럼장에서 있었다. 데보라 스미스는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번역해 세계에 널리 알린 번역가다. 이번 행사는 영미문화화학과가 CORE 대학인문역량강화 사업단 기초학문 심화 모델의 후원을 받아 개최했다. 행사장에는 80여 명이 넘는 교강사와 석박사 과정생, 영어대 학부생, 번역에 관심 있는 다양한 전공 학생, 문학 번역가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LD학부, 리츠메이칸 대학 국제관계학부의 교류 세미나**

우리 대학 LD학부와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 국제관계학부 교류 세미나가 지난 1월 29일(화) 교수회관 강연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교류 세미나는 리츠메이칸 대학에서 국제정치경제학과 미일 경제 분쟁을 가르치는 나카토 사치오 교수와 LD학부에서 국제관계학과 안보론을 가르치는 김장호 교수의 인연으로 이뤄졌다. 나카토 사치오 교수를 비롯한 리츠메이칸 대학 국제관계학부의 학생 15명과 LD학부의 김장호, 우병원, 이기현 교수, 그리고 학생 15명이 참석해 한국과 일본을 둘러싼 국제 관계의 주요 쟁점에 대해 열린 토론을 진행했다.



**㈜태드솔루션과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MOU 체결**

우리 대학은 지난해 12월 6일(목) 국내 유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인재 채용 및 조직 내 리더의 발굴과 육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컨설팅 기업 ㈜태드솔루션과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김인철 총장과 이도형 (주)태드솔루션 대표는 협약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인재 육성의 기틀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글로벌 경영 관리, 리더십, 글로벌 역량 진단 등 한층 다변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것으로, 다양한 계층의 기업이 체계적 인사 관리와 임직원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설계할 예정이다.



**주식회사 LINKA 및 데모데이와 MOU 체결**

우리 대학 대학원 교학처에서는 지난해 12월 18일(화) 서울캠퍼스 브릭스홀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현장 경험 습득과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포용 금융 서비스 회사인 LINKA 및 국내 스타트업 포털 데모데이와 협약을 체결했다. 안수현 교학처장은 "한국에서 유학하는 해외 학생에게 해외에서 일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실질적 기회가 이번 협력을 통해 처음으로 마련됐고 이번 기회를 통해 다른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스타트업으로의 확산까지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아리연합회, 서울시 캠퍼스타운 이문스프링 사업단과 MOU 체결**

지난 2월 14일(수) 사이버관에 위치한 지식출판콘텐츠원장실에서 우리 대학 동아리연합회와 서울시 캠퍼스타운 이문스프링 사업단(단장 가경준)이 이문스프링 사업에 대한 교류협력을 약속했다. 캠퍼스타운 이문스프링 사업단은 동아리연합회에 정기적으로 무대를 제공하고, 동아리연합회는 원활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교류 분야는 다국어 문화 공연 사업, 문화 콘텐츠 개발과 운용, 기타 상호 교류협력 가능 분야 발굴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 관계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와 지역 독서문화 발전 협약 체결**

우리 대학과 용인시는 지난 2월 15일(금) 용인시청 시장실에서 지역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인철 총장과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역 사회의 인문 정신 문화 확산과 관내 공공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용인시는 우리 대학이 진행하는 강좌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 대학은 우수한 강사진과 연구 성과를 활용해 용인 시민이 원하는 인문학 강좌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용인시가 요청하는 다양한 인문학 콘텐츠 개발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인도연구소**

**백좌홍 교수와 박여송 관장 초청 특강**

우리 대학 인도연구소(소장 김찬완, 국제지역대학원 인도·아세안학과 교수)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은 지난 11월 30일(금) 서울캠퍼스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전문가 특강을 개최했다. 인도연구소 주관 명사 초청 특강의 아홉 번째 초청 전문가인 백좌홍(경상대, 前 한국인도학회 회장)교수와 박여송(인도박물관) 관장은 각각 '나의 인도 연구'와 '인도 민속 미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30여 년 동안의 생생한 인도 연구-노하우와 함께 각 지역별로 나타나는 다양한 인도 민속 미술의 특징에 대해 청강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다. 인도연구소 HK+사업단은 다양한 학문 분야의 인도 전문가 특강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성과 발표회 및 학술대회 참석**

인도연구소(소장 김찬완, 국제지역대학원 인도·아세안학과 교수)는 지난 3월 8일(금)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인문한국(HK)연구소협의회와 HK성과확산총괄센터 주최 '지역인문학센터의 우수성과 발표회'와 '3·1운동 100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했다. 오전에 진행된 '지역인문학센터의 우수성과 발표회'에서는 최지연 HK교수가 '한국형 간디아슈람 구축 제1년차 성과'라는 주제로 우리 대학 인도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의 성과 발표를 했다. 이어 진행된 '3·1운동 100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에서는 김찬완 인도연구소장이 '인문학, 공존의 미래를 말하다' 세션의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지역인문학센터, '인도의 지혜: 고통·욕망·요가·행복' 인문학 강좌 진행**

인도연구소(소장 김찬완, 국제지역대학원 인도·아세안학과 교수) HK+사업단 지역인문학센터(간디아슈람)는 인도의 인문 자산을 폭넓게 이해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인도의 지혜: 고통·욕망·요가·행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중장년·노년층 5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증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지난 3월 12일(화)부터 5월 21일(화)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강사를 맡은 우리 대학 조준호 초빙교수는 "인도 사상과 문화가 끼친 세계 문화와 한국 전통 사상을 통해 현대 한국인의 삶을 성찰하고, 나아가 인도에 대한 인문학적 관심을 자극해 좀더 깊이 있게 인도를 이해할 수 있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연구원**

**제9차 외교포럼**

우리 대학 LD학부와 IT학부 산하 외교통상연구센터는 지난 11월 27일(화) 서울캠퍼스 브릭스 국제포럼장에서 제9차 외교포럼을 개최했다. 외교포럼 개최를



기체해 강유덕 IT학부장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고, William Tow 호주국립대 교수가 '인도-태평양 동맹과 연합의 정치'를 주제로 기조 연설을 했다. 또한 김장호 LD학부장의 사회로 William Tow 호주국립대 교수, 김우상 연세대 교수,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가 라운드테이블 토론에 참여했다. 중국의 해양 강국으로의 부상과 동시에 동남아 지역이 부상하는 가운데, 기존 아시아-태평양에서 인도-태평양으로의 국제적 관심의 트렌드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어졌다.

**글로벌캠퍼스 로컬리티 특성화사업단**

**2018 국제지역대학 Academy Week**

글로벌캠퍼스 국제지역대학 9개 학과와 교육부 CK사업 국제화 부문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대학 로컬리티 사업단이 공동 주최한 '2018 국제지역대학 Academy Week'가 지난 11월 12일(월)~16일(금) 5일 동안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학술제는 국제지역대학 재학생들이 쌓아온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주도적으로 다양한 학술 행사를 기획하고, 구체적 진로를 설계하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지역대학 9개 학과의 전공 특성 및 한국외대의 교육 비전과 연관된 각 분야의 교내외 인사를 초빙한 기획 특강, 학회 주도의 학술 발표회 및 퀴즈 대회, 로컬리티 사업단이 주관하는 해외 탐사 프로그램 성과 보고회와 발표 경연 대회 등이 눈길을 끌었다.



**일본연구소**

**국제학술심포지엄 '위안부 문제의 국제화' 개최**

우리 대학 일본연구소(소장 박용구)는 지난 12월 8일(토) 서울캠퍼스 본관 대회의실에서 '위안부 문제의 국제화'를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동아시아

의 호모커뮤니쿠스' 문화를 선도하는 일본연구소는 '일본의 국가권력에 의한 성폭력 합리화 메커니즘 연구'라는 연구 과제가 2018년도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사업의 다년과제에 선정돼 제1차년도 국제 학술대회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화'에 초점을 맞춰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모두 다섯 개의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위안부 문제가 단순히 한일간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문제임을 재차 확인했으며, 인권 문제로서 인류가 생존해 있는 한 시효가 소멸될 수 없는 과제를 명백히 했다.



**위안부 문제 관련 콜로키움**

일본연구소(소장 박용구)는 지난 3월 9일(토) 우리 대학 서울캠퍼스 교수회관 2층 강연실에서 이철원 교수(한국교통대 중국어과)를 초청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중국의 공식입장과 사회적 연구동향'을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는 일본연구소의 일반 공동연구사업의 과제 '일본의 국가권력에 의한 성폭력 합리화 메커니즘 연구'의 일환으로 세 번째 열린 콜로키움이다. 이철원 교수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위안부 제도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함께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 설명한 뒤 "중국에서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에 따른 다양한 문화적 산물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중국 정부의 반응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언어연구소**

**2018 언어연구소 정기 학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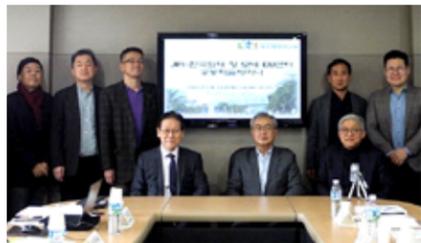
우리 대학 언어연구소(소장 홍성훈, ELT학과 교수)는 HK 세미오시스 연구 센터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외대 아프리카 연구소가 후원하는 '2018년 언어연구소 정기 학술대회'를 지난 12월 14일(금) 서울캠퍼스 교수회관 강연실과 세미나실에서 진행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언어학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 발표가 진행됐다. 경희대 박해일 교수, 한국외대 권익수 교수, 미국 콜로라도 대학 Zygmunt Frajzngier 교수의 기조 강연과 4개 분과 8개의 주제 발표가 그것으로, 발표자와 청중은 열정적 학문 교류를 나누었다.



**장모네 EU센터**

**제주평화연구원과 학술세미나**

우리 대학 장모네 EU센터(소장 김시홍)와 제주평화연구원(원장 김봉현, 전 호주 대사)은 지난 1월 14일(월) 제주도 중문에 위치한 제주평화연구원 세미나실에서 '한반도 평화와 EU의 역할'을 주제로 공동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덕민 LD학부 석좌교수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홍기준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가 '헬싱키 프로세스와 북핵 및 인권'을 주제로 첫 세션 발표와 토론을 했으며, 둘째 세션에서는 김봉철 국제학부 교수가 '한-EU 위기관리



협정과 양자관계, 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이 'EU의 PESCO 출범과 향후 발전 방향' 대해 발표했다.

**세계문화예술경영연구소**

**2019 Interactive Conference 개최**

지난 1월 10일(목) 우리 대학 세계문화예술경영연구소(소장 장은수)는 단독으로 학생과 교강사가 주축이 돼 서로의 의견을 주고 받는 'Interactive Conference'를 개최했다. 3부로 나눠 진행한 이번 학술대회 참석자들은 '예술과 음식이 어떻게 조우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가'에 대해 인문학적 각도에서 토론을 벌였다. 1부에서는 15세기부터 20세기까지 각 세기의 요리서, 요리를 먹는 자와 요리 사이의 간자들의 역할, 계층과 먹거리 등 음식과 예술을 둘러싼 여러 가지 텍스트와 콘텐츠의 상호참조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다뤘다. 2부에서는 영화와 연극, 미술 속 음식 알레고리를 다뤘고, 3부에서는 대학생 발표가 이어졌다.



**HK 세미오시스 연구센터**

**2019년 세미오시스 겨울학교, 성황리 종료**

우리 대학 HK 세미오시스 연구센터(센터장 전기순 교수, 스페인어과)는 지난 2월 13일(수)~15일(금) 3일에 걸쳐 서울캠퍼스 교수회관 강연실에서 '세미오시스



겨울학교'를 개최했다. 세미오시스 겨울학교는 '세미오시스 인문학: 퍼스와 21세기 융합학'이라는 주제로 방학 중에 개설하는 기초학, 인문학 교양 프로그램으로서 기호가 형성하는 새로운 의미 지평의 가능성을 발표자와 청중이 함께 속고하고 토론하는 학문 잔치 마당이다. 이번 세미오시스 겨울학교는 전문 연구자,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 시민 등 모두 170여 명이 참석해 기초학과 인문학의 흐름과 전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실감하게 했다.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

**한국-인도-러시아 국제 학술대회 성료**

우리 대학 인도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단장 김찬완, 국제지역대학원 인도·아세안학과 교수)은 러시아연구소 HK사업단, 인도 자와할랄 네루 대학교의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러시아 상트페테르스부르크 대학의 동서사회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난 12월 13(목)~14일(금) 이틀 동안 미네르바 콤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인도-러시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인도-러시아를 포괄하는 주제 'Exploring A New Age of Cooperation through Mutual Understanding'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 학술대회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우리나라의 신남방 정책, 러시아 극동 지방과 우리나라의 철도 연결 등 부상하는 새로운 이슈를 폭넓게 논의하는 장이었다.



**'제7회 인문학플러스(HK+) 연합회' 정기회의**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 연합회 회장인 우리 대학 인도연구소 김찬완 소장(국제지역대학원 인도·아세안학과 교수)은 지난 2월 22일(금) HK+ 사업단 간의 소통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 협의를 목적으로 연세대 원주캠퍼스에서 개최된 제7회 인문한국플러스

(HK+) 연합회를 주관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14개 사업단 중 11개 사업단의 HK+ 사업단장과 교수진, 실무 담당자가 참여해 HK+ 지원 사업 운영 규정 행정 입법(안), 한국연구재단 평가 시스템 개선 등 HK+ 사업단 운영과 관련한 논의와 토론을 했다.



**인문역량강화사업단**

**국제학술대회 성황리 개최**

우리 대학 인문역량강화사업단 기초학문심화모델은 지난 1월 10일(목)~12일(토) 철학문화연구소와 함께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국제세미나실에서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istic Studies at HUFS'라는 이름의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학술대회는 미국, 독일, 러시아, 헝가리, 중국, 일본, 홍콩 등 해외 각국의 대학교에 소속된 해외 학자와 국내 대학교에 소속된 학자 등 모두 32명의 발표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지역학, 언어학, 문학, 역사학, 철학을 전공하는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East and West as Centers in the Centerless World'라는 주제로 학술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이 학술대회의 성과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소개할 예정이다.



**러시아연구소**

**국제 학술회의**

우리 대학 일본연구소(소장 박용구 교수)는 지난 9월 14일(금) 일본 東亞歴史文化學會와 공동으로 한국외대 교수회관 강연실에서 '일본연구의 성과와 비전'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학술대회에서는 일본어학, 일본문학(고전·근대), 일본문화, 일본정치, 일본경제 등 6개 전공 분야의 일본 연구 현황과 향후 일본 연구의 비전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각 전공 분야의 개별 연구는 물론 융복합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제178차 콜로키움**

우리 대학 러시아연구소는 지난 2월 25일(월) 서울캠퍼스 교수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러시아 야로슬라블 국립대 공공정책학과 학과장 알렉산드르 소콜로프 교수를 연사로 초청해 '러시아 엘리트와 현재 정치상황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소콜로프 교수는 오늘날 러시아의 정치 상황, 사회-경제적 상황, 대내외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도전, 서방의 경제 제재 등을 설명하고, 이런 배경에서 러시아 엘리트의 딜레마와 경향, 엘리트 그룹들과 상호 관계의 특성과 불안정 요인 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했다.



HUFS Professors



**이재원 독일통번역학과 교수,  
한국독일어교육학회 회장 선출**

우리 대학 이재원 교수(독일어통번역학과)가 지난해 12월 1일(토) 한국독일어교육학회 회장으로 선임됐다. 한국독일어교육학회는 독어독문학과 독어교육 연구를 위해 설립된 학술 단체로, 정기적으로 학술 모임을 하며, 저명한 외국학자를 초빙해 공동으로 학술 대회를 개최한다.



**김용민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정치학회 학술상 수상**

우리 대학 김용민 교수(정치외교학과)가 '2018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지난 3월에 출판된 「정의와 행복을 위한 키케로의 철학」으로 한국정치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학술상은 한국정치학회 최고의 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키케로 철학에 관한 국내 유일의 연구 단행본으로서, 키케로의 정치 철학을 비롯해 그의 헬레니즘 철학 체계 전반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



**박재창 LD학부 석좌교수의 「한국의 거버넌스」와 「한국의 헌법개정」, 올해의 우수학술저서 선정**

우리 대학 박재창 석좌교수(LD학부)의 저서 「한국의 거버넌스」와 「한국의 헌법개정」이 한국대학출판협의회와 문화관광부로부터 2018년 올해의 우수학술저서로 선정됐다. 그의 저서는 30여 년 넘게 국회 개혁과 시민 운동 연구를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기에 이번 우수 학술저서 선정이 더욱 값지다.



**문재완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제25대 한국헌법학회 신임회장 취임**

우리 대학 문재완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지난해 12월 21일(금)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개최된 한국헌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제25대 한국헌법학회 회장에 취임해 1년 동안 회장으로 활동하게 됐다. 문재완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에서 박사학위(S.J.D.)를 받았다.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 등을 역임했다.



**윤대식 미네르바교양대학 교수,  
제7회 은 버림 정중선생 학술상 수상**

우리 대학 윤대식 교수(미네르바교양대학)는 지난 2월 22일(금) 개최된 '2018-19년 한국공자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제7회 은 버림 정중선생 학술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는 '관중(管仲)의 국가 책무 기화: 온정과 통제의 경계 짓기' 논문으로 학술상을 수상했다.



교수출간

**장영란 미네르바교양대학 교수,  
「호모 페스티부스: 영원한 삶의 축제」 출간**

우리 대학 장영란 교수(미네르바 교양대학)가 「호모 페스티부스: 영원한 삶의 축제」를 출간했다. 이 책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2018년 우수출판콘텐츠지원사업 선정작으로, 축제의 기원과 원형을 분석해 삶의 한계 상황을 인식하고 인간의 고통을 치유하고 삶을 재정립하는 목적에 대해 다룬다.



New Professors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01 **유현주**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 02 **윤원주**  
경영대학 경영학부
- 03 **안정민**  
KFL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 04 **마승혜**  
통번역대학 영어통번역학부
- 05 **정찬철**  
미네르바 교양대학(글로벌)
- 06 **Jin Ke Zhong**  
통번역대학 중국어통번역학과
- 07 **Maryani Ahmad**  
통번역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 08 **Tiborcz Toth Tunde**  
동유럽학대학 헝가리어과
- 09 **Joice Eloi Guimaraes**  
국제지역대학 브라질학과
- 10 **Erwin Tan**  
유엔평화학과
- 11 **George Elliott Koichi Whitehead**  
영어교수학습지도학과
- 12 **Gokce Misirli**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 13 **John Breckenfeld**  
외국어교육센터
- 14 **Li Xingyang**  
중국언어문화학부

- 15 **Michael Lance Rabbidge**  
영어교육과
- 16 **Oscar Abenojar Sanjuan**  
스페인어과
- 17 **Wu Zhen Hua**  
중국어교육과
- 18 **Zhang Haiying**  
중국언어문화학부
- 19 **Zhu Tong**  
중국언어문화학부
- 20 **Zimbaro Marta**  
이탈리아어과

외국어연수평가원				
<b>2019년 하반기 외국어교육과정</b>				
구분	과정명	개강시기	2019년 상반기 교육일정	
주중과정	20주 주간과정	2월, 8월	2019. 08. 05-	12. 20
	방학특별과정	1월, 7월	2019. 07. 16 -	07. 31
야간과정	10주 야간회화과정	2월, 4월, 8월, 10월	2019. 08. 06 -	10. 10
	주말과정	14주 주말과정	3월, 8월	2019. 08. 31 -
		FLEX 대비과정	3월, 9월	2019. 09. 21 -

외국어연수평가원은 기초부터 고급까지 실용 외국어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다양한 외국어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 언어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마인어, 아랍어 등으로, 언어별 적정 인원 모집 시 개강한다. 주요 교육 과정은 말하기·쓰기·듣기·읽기를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12주 주간과정, 단기간 실용 회화 능력을 집중 향상시키는 10주 야간과정, 실제 의사 소통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주말에 진행되는 주말특별과정, 여름과 겨울방학에 단기과정으로 진행되는 방학특별과정, 공무원 유효시험으로도 활용되는 국가공인 FLEX 시험 대비과정 등이 있다.

문의 02-2173-2515, 2524, 2525 **홈페이지** <http://flttc.hufs.ac.kr>

#### 기관/기업체 위탁 교육과정

외국어연수평가원은 연간 40개 이상의 기관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과 소속 임직원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어학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는다. 이 과정은 위탁 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설하며, 의뢰 기관의 교육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차별화된 커리큘럼과 콘텐츠를 바탕으로 위탁 기관의 특성과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맞춤형 외국어 교육과정으로 설계 및 제공된다. 현재까지 인사혁신처,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화재에니카손사, 롯데인재개발원, 한화그룹, KEB하나은행, 현대중공업 등 많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공기업을 비롯해 국내 유수의 그룹과 기업체 등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과정 이수 후 교육 성과와 만족도 면에서 높은 평가로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문의 02-2173-2524 **홈페이지** <http://flttc.hufs.ac.kr>

#### TÖMER 터키어 강좌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터키 국립 앙카라대학교 간 협정에 의거해 2011년부터 운영된 TÖMER(퇴메르) 터키어 과정은 앙카라대학교 내 동명의 교육 센터와 협력해 진행되는 국내 유일의 대학 부설 터키어 교육프로그램이다. 터키 TÖMER 본부에서 제공하는 체계적 교육 커리큘럼과 학습 자료, 직접 파견한 원어민 교수와 진행하는 강도 높은 회화 교육을 통해 단기간에 터키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매년 2, 4, 8, 10월 각각 8주 일정으로 개강하며 학생과 일반인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2-2173-2524

#### 스페인어 자격시험 DELE

DELE는 스페인 정부의 이름인데 Instituto Cervantes가 수여하는 권위 있는 공인자격증으로 스페인어의 언어적 능력과 경쟁력을 증명한다. 한국외대는 Instituto Cervantes와 협정을 맺은 DELE 시험 시행 기관으로 매년 5, 7, 11월 3차례 DELE 자격 시험을 진행한다. 시험을 통해 획득한 DELE 자격증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된다.

문의 02-2173-2498 **홈페이지** <http://seul.cervantes.es>

#### 세르반테스 교실 스페인어 강좌

외국어연수평가원은 스페인 세르반테스 문화원과 협력해 교내에 세르반테스 교실을 개설해 2015년 1월부터 스페인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스페인어 일반어 학과정(입문, 초급, 중급, 고급), DELE 시험대비반(B1, B2, C1), 단기특강(DELE문법, DELE구술대비반, 추구스페인어, 여행스페인어) 등 모든 강좌는 전문 원어민 강사가 직접 진행한다. 지난해 9월부터는 평일 오전과 토요일에도 일반어학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문의 02-2173-3593 **홈페이지** <http://seul.cervantes.es>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AulaCervantesSeul>

### 서울평생교육원

#### 통번역기초과정

서울평생교육원은 통번역센터와 협업해 '통번역기초 과정'을 운영한다. 2014년 개설해 현재까지 350여 명이 수강한 통번역기초과정은 한국외대의 38년 통번역 교육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며, 통번역 기초 기술을 학습함으로써 외국어 구사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9개 언어에 대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며 연 2회 3, 9월에 개강한다. 통번역에 관심 있는 성인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문의 02-2173-2515 **홈페이지** <http://edulife.hufs.ac.kr>

#### 통번역 단기특강

서울평생교육원은 학생 및 일반인의 통번역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통번역기초과정에 이은 통번역 단기특강을 준비했다. 통번역 단기특강은 5주 동안 통번역의 기초를 다져 좀더 수준 높은 외국어 학습에 필요한 기틀을 닦을 수 있는 단기과정으로 올 7월 중 운영할 예정이다.

문의 02-2173-2515 **홈페이지** <http://edulife.hufs.ac.kr>

### FLEX센터

#### 2019년 FLEX 정기시험 일정

FLEX 시험은 한국외대가 수년의 개발 기간을 거쳐 1999년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관리하는 전문 외국어능력시험이다. 외국어 사용에 대한 전반적 능력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평가하는 표준화된 도구며 현재 주요 7개 언어인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의 정기 시험을 연 4회, 3개 영역(듣기·읽기, 쓰기, 말하기)으로 나눠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FLEX는 모든 평가 언어가 듣기·읽기 영역에서 국가공인자격증을 획득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신뢰도와 변별력이 높은 시험으로 우수성을 높게 평가받는다.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	성적발표일	
			듣기·읽기	쓰기/말하기
1회	01. 29 ~ 02. 08	03. 03	03. 22	04. 05
2회	04. 26 ~ 05. 02	05. 26	06. 14	06. 28
3회	08. 01 ~ 08. 07	09. 01	09. 20	10. 04
4회	10. 10 ~ 10. 16	11. 10	11. 29	12. 13

문의 02-2173-2532, 2529 **홈페이지** <http://flex.hufs.ac.kr>

#### 기관 맞춤형 외국어 능력 평가 상시 시험

FLEX센터는 기업체, 정부, 공공기관, 학교, 학원, 단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과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외국어 능력 평가를 상시 시행한다. 이 시험은 기존 정형화된 시험과 달리 의뢰 기관에서 시험 내용, 시행 일정 등을 자유롭게 지정해 진행할 수 있다. FLEX센터의 외국어 능력 평가는 국내 주요 정부기관, 공기업, 금융기관 및 일반 기업체에서 채용, 인사 고과, 승진, 해외 파견 대상자 선발 등에 폭넓게 활용한다.

문의 02-2173-2530 **홈페이지** <http://flex.hufs.ac.kr>

#### 전국 초·중·고등학교 외국어경시대회 일정 안내

한국외대와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 고등학교가 공동 주최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외국어경시대회가 올 6월 23일(일) 오후 3시(접수 기간: 4월 8일(월)~5월 3일(금) 오후 5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 대회는 올해로 30년(초등 경시는 17년)을 맞이한 국내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외국어경시대회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듣기·읽기 능력을 평가해 최종 종합 성적 우수자를 선정·시상한다. 최종 종합 성적 우수자에게는 한국외대 총장상이 수여되고, 응시자 전원에게 '성적인 증서'를 발급한다.

문의 02-2173-2532, 2529 **홈페이지** <http://eflex.hufs.ac.kr>

### 통번역센터

#### 국내 최고의 통번역 서비스 제공

통번역센터는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과 학부와의 연계를 통해 15개가 넘는 언어에서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역은 올 3월까지 150여 건의 11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했고, 번역은 500여 건의 17개 언어(영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포르투갈어, 카자흐스탄어, 우즈베키스탄어, 터키어, 키르기즈어, 카탈루냐어) 전문 번역 서비스를 제공했다.

문의 02-2173-2440 **홈페이지** <http://hufscit.com>

### 한국문화교육원

#### 봄학기 한국어 정규과정 및 통번역을 위한

##### 한국어 과정 개설

한국어문화교육원은 연 4회, 10주로 구성된 한국어 정규과정과 고급 한국어 구사를 위한 필수 과정으로 알려진 통번역을 위한 한국어 과정을 개설했다. 이번 봄학기는 3월 5일(화)부터 5월 14일(화)까지 진행되며 현재 등록 인원은 720여 명이다. 우리 교육원에는 중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권 국가 외에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 50여 개국의 다양한 국적의 지닌 학생들이 교육 받고 있으며,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말하기 중심' 수업으로 외국인 사이에 인기가 높다.

문의 02-2173-2260

#### 봄학기 한국어 단기과정 개설

한국어문화교육원은 지난 2월 26일(화)부터 3월 26일(화)까지 봄학기 한국어 단기과정을 개설했다. 이번 단기과정에는 모두 44명이 참여했으며 일본, 태국 등 아시아 국적 외에 스위스, 브라질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이 참여했다. 한국어 단기과정은 한국어 공부 외에 한국 음식 만들기, 인장 만들기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이 매우 이뤄진다.

문의 02-2173-2610

#### 한국어 위탁·특별교육과정 실시

한국어문화교육원은 한국어 정규과정 외에 싱가포르, 태국, 일본, 미국 등 해외 대학 특별과정을 진행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중국 학도학원 특별과정, 일본 천리대학 한국어 특별과정, 일본 니가타현립대학 한국어 특별과정, Macao Polytechnic Institute 한국어 특별과정, 일본 오사카 여자대학 한국어 특별과정, 일본 호세이대학 한국어 특별과정,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국어 특별과정 등 다양한 한국어 특별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금 현재 사우디 의료진 펠로우십 특별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4월에는 2019년 외국지방공무원 초청연수사업 사전교육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02-2173-2610

### TESOL전문교육원

#### 2019학년도 전기 해외인턴십 설명회 진행

TESOL전문교육원은 2019학년도 전기 해외인턴십 설명회를 3월 20일(수)과 3월 23일(토) 두 차례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본관 707호에서 진행했다. 설명회는 행정 절차 및 각 학교 인턴십(캐나다 셀커크대, 뉴욕 주립대, 캘리포니아 주립대)에 대한 소개와 Q&A로 이뤄졌다. 3월 26일(화)부터 지원서를 접수했으며, 뉴욕 주립대와 캐나다 셀커크대는 인턴십 선발 시험에 통과해야 해외 인턴십 참가 자격을 얻는다. 인턴십 선발 시험은 4월 4일(목) 치러졌다.

#### 2019학년도 후기 일반전형 대비 입학설명회 개최 안내

TESOL전문교육원은 2019학년도 후기 일반전형을 준비하는 이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 입학설명회는 5월 4일(토) 오후 2시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본관 303호 강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TESOL 과정 소개, 특전, 입사과정 안내(일반전형), 해외 인턴십, 교수진 및 수료생과의 만남 및 상담회 등의 행사가 포함된다. 별도 신청 없이 당

일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과 브로슈어, 모집 요강을 제공한다.

접수기간 : 2019. 05. 07 ~ 14	전형일자 : 2019. 05. 19
*수업기간 : 2019년 9월 2일(월)부터 2020년 1월 말(약 5개월) *지원자격 : 국내외 학사 학위 소지자 또는 2019년 8월 졸업예정자 *자세한 내용은 교육원 홈페이지(www.tesol.ac.kr)를 통해 확인	

### 국제사회교육원/영재교육원

#### 2019년 삼성외국어생활관 지역전문가과정 수료식 개최

국제사회교육원(원장 백재승, 국제금융학과 교수)은 지난 2월 28일(목) 삼성외국어생활관 지역전문가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모두 17개 어종 교육을 위해 입소한 교육생들은 10주 동안 현지어 어학 능력 확보 및 현지 이해에 주안점을 둔 교육 커리큘럼을 소화했고, 교육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소정의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10주 동안 교육받은 교육생들은 수료식과 함께 세계 각지로 파견돼 향후 업무를 위한 현지 연구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 2019년 삼성외국어생활관 주재원 파견 전

##### 어학집중과정 입소식 개최

국제사회교육원(원장 백재승, 국제금융학과 교수)은 지난 2월 25일(월) 삼성외국어생활관 주재원 파견 전 어학집중과정 입소식을 개최했다. 현지에서의 어학 활용 능력 신장을 위해 입소한 이번 교육생들은 비즈니스 수행을 위한 어학 학습에 역점을 두고 교육받을 예정이다. 교육 기간 종료 뒤에는 교육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소정의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현지에 파견돼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2019학년도 한국외대 영재교육원 입학식 개최

영재교육원(원장 백재승, 국제금융학과 교수)은 지난 3월 9일(토) 2019학년도 한국외대 영재교육원 입학식을 개최했다. 해당 영재교육 대상자들은 서류 전형 등을 포함해 다수의 전형을 통과한 인재로, 1년 동안 영재를 위해 특화된 커리큘럼의 교육을 받을 예정이며 교육 외 멘토링 등 비교과 영역 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격주로 진행되는 1년 동안의 교육 종료 후에는 산출물 발표와 수료식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세를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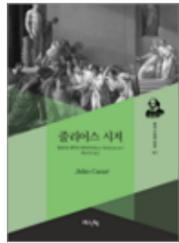
지식출판콘텐츠원

새로  
나온  
책

한-라틴아메리카 기후협력

이 책은 중남미연구소가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한-중남미 환경 협력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마치면서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대표적 연구 논문 15편을 4부로 나눠 수록했다. 1부는 라틴아메리카의 사상, 문화, 환경, 사회 문제, 2부는 라틴아메리카의 경제 성장, 외국인 투자, 무역, 3부는 라틴아메리카에서의 탄소 배출권에 대한 법적 성격, 재생 에너지 정책, 탄소 추적 시스템, 4부는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대기 오염, 예측, 평가 및 정책, 협력 이슈를 다룬다.

중남미연구소 / 540면 / 신국판 / 32,000원



4차산업혁명과 C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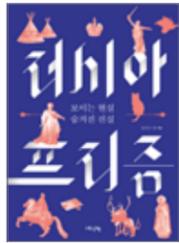
4차 산업혁명에서 빅데이터 분석은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 및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해 이를 활용하게 한다. 빅데이터의 확산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기업 경쟁에서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가능하게 해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는 CRM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책은 이러한 고객 관계 관리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CRM 분석 활동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높여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조준서 / 424면 / 신국판 / 20,000원

글로벌 시대의 국가 브랜드 전략

'왜 국가들은 브랜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가?'라는 물음에 국가 브랜딩에 대한 이론과 실천 방법을 다각도로 조명한 책. 저자는 브랜드 정체성과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포지셔닝, 브랜드 자산 같은 브랜딩 관련 문제와 더불어 국가 정체성과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 정치적 인식과 관련된 좀더 광범위한 문제를 자세히 다룬다. 개념과 함께 실제 사례와 전문가 관점, 도표와 그림을 통해 이해를 돕는다.

김유경, 이희복 / 456면 / 신국판 / 25,000원



에스닉 문화 콘텐츠

에스닉(ethnic)은 보통 인종적·민족적·종족적·민속적 고유의 어떤 특색을 가리키는데 사용하는 단어다. 각 민족이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공유하며, 다른 문화와 구별되는 독특한 양식을 의미한다. 오늘날 에스닉은 소수 민족에 해당하는 민족 공동체나 그들의 정체성, 또는 종족(민족) 사이의 불평등한 위계 관계는 물론 각종 하위 문화를 향유하는 비주류 소수 집단을 폭넓게 지칭한다.

박치완, 유재상, 안효성 외 / 232면 / 신국판 / 20,000원

러시아 프리즘

이 책은 이십 년 이상 러시아 문제에만 몰두한 교수 열두 명이 국내 독자들이 러시아와 러시아인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러시아인에 대해 우리가 가진 편견이나 오해가 무엇인지 고민했다. 마지막으로 주제를 연구자의 전공과 경험,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선별했다. 저자들은 급변하는 러시아의 현재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미래를 예측한다.

강덕수 외 / 400면 / 신국판 / 20,000원

바람이 부는 시간

시는 현실 너머 새로운 길을 상상하고 꿈꾸고, 그 꿈을 향해 뚝뚝뚝 걷게 한다. 시와 함께 걸으면 이 막막한 나날을 쉬 지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 생긴다. 그러니 일단 시와 함께 걸어 보자. 시는 내 판단의 뿌리, 자비와 사랑의 뿌리, 즐거움의 뿌리, 재잘거리는 내 수다의 뿌리, 내 침묵과 미소, 슬픔의 뿌리다. 시와 함께 걸으며 견디며 지나온 나날, 그동안 시와 함께 한 글을 모아 일상에서 시가 바람처럼 신비롭게 전하는 사유와 성찰의 힘을 질문한다. 정은귀 / 312면 / 신국판 / 20,000원

줄리어스 시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로마 비극 「줄리어스 시저」는 로마 공화정의 몰락과 제정, 로마의 등장을 알리는 정치적 격변의 시기를 다룬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56세의 시저 암살로부터 기원전 42년 필립파이 전투에서 공화주의자인 브루투스 일파의 패배로 내전이 종식되기까지 3년에 걸친 기간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정치적 동시에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대립이라는 인간의 영원한 실존적 문제를 제기한다.

박우수 / 200면 / 국판 / 10,000원

신의 선물 기회의 땅, 중남미

언제부턴가 한국 청년들의 희망 직업 1순위가 공무원이 됐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무능한 게 아니다. 문제는 낮은 경제 성장으로 국내에서 고급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있다는 것. 중남미 사람들의 소득 수준은 우리보다 낮고 빈부 격차도 크지만, 그들의 삶은 우리처럼 경쟁적이지도 절박하지도 않다. 우리 청년들이 한국에서 체득한 경쟁력과 인내심이면 중남미 어디에서든 생존이 가능하다. 지금 중남미는 한국 청년들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다.

추종연 / 320면 / 신국판 / 17,000원

힌두이즘

「힌두이즘」은 힌두이즘에 관심 있는 독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입문서이자, 다양한 힌두이즘 내용을 포괄적으로 서술한 도서로 전문 연구자에게도 필독서로 명성을 얻고 있다. 처음 '힌두'라는 용어는 인더스강이 흐르는 인더스 계곡 지역을 의미하는 말이었으나, 후에 점차 그 지역의 사람들로 확장됐다. 힌두이즘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때로는 인도외부에서 유입되거나, 때로는 내부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화의 혼합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김형준, 최지연 외 / 216면 / 신국판 / 16,000원

한국의 헌법개정

헌법 개정은 문제 자체가 매우 포괄적이고 다면적 성격을 지니는 과제다. 그런 만큼 개헌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실로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포괄하고 융합하는 일은 필수 불가결적 과제다. 범법과과학적인 협동 전략을 필요로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이로 인해 여기에서는 법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정책학 분야 전문가가 개헌과 관련된 주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주문하는지 비교·검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박재창 / 576면 / 신국판 / 32,000원

N  
E  
W  
B  
O  
O  
K  
S



2018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및 2019학년도 1학기 입학식 개최

사이버한국외대와 사이버한국외대 TESOL대학원의 2018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2월 23일(토) 사이버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 학사 703명, 석사 7명 등 모두 710명이 학위를 받았다. 학위수여식이 끝난 뒤 대학 생활에 첫발을 내딛는 신·편입생을 축하하기 위한 2019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입학식이 마련됐다. 입학식에서는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으며, 학부·학과별 오리엔테이션을 함께 진행했다.



김중렬 사이버한국외대 총장,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제11대 회장 취임

김중렬 사이버한국외대 총장이 지난 3월 1일(금) 전국 21개 사이버대학 운영 협의체인 (사)한국원격대학협의회 제11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김중렬

총장은 원대협 회장으로서 2020년 8월까지 임기를 수행한다.

인도네시아 명문 대학들과 국제교류 협약 체결

지난 1월, 사이버한국외대 김중렬 총장, 진정란 입학 학생처장, 임영호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장 등은 인도네시아 명문 대학들을 방문해 교육 및 학술 교류 증진을 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했다. 1월 21일(월)에는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학교 전문대학(SV UGM)과 학술적,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 간의 우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했고, 1월 23일(수)에는 인도네시아 민족대학교(UNAS)와 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양교의 교류 확대와 심화된 협력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해외 취업 특강

사이버한국외대는 지난 2월 9일(토) 사이버관 소강당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센터와 함께 '취업, 해외에도 길이 있다'라는 주제의 교양 특강을 개최했다. 재학생과 동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양 특강은 해외 취업 가이드와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을 맡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황성혜 과장은 해외 취업 현황과 다양한 국가별 취업 전략, 구직 단계별 정부 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유용한 정보를 들려줬다.



대만 국립가오슝사범대에서 2018 동계 해외어학연수 사이버한국외대 중국어학부는 학생들의 중국어 어학 능력과 중국 문화의 이해도 함양을 위해 지난 1월 5일(토)~12일(토)까지 대만 국립가오슝사범대학에서 동계 해외어학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어학연수에는 중국어학부 원종민 교수, 자오원카이 교수와 사이버외대 재학생 15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연수 기간 동안 개인 수준에 맞는 언어 수업과 대만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문화 수업, 대만 현지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제9회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

사이버한국외대 일본어학부는 지난 1월 19일(토) 사이버관 소강당에서 '제9회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학생들이 국제적 감각을 함양하고 일본어와 일본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지닐 수 있게 마련된 이번 콘테스트에는 예선을 거쳐 선발된 15명이 최종 본선에 올라 실력을 겨뤘다. 본선 진출자 모두 독창적 주제와 풍부한 표현력으로 기량을 펼쳤으며,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인기상 등 5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했다.



재외동포재단과 '한글학교 교사 학위 취득과정 지원 사업' 협력 MOU 체결

사이버한국외대는 지난 1월 28일(월) 재외동포재단과 '한글학교 교사 학위 취득과정 지원 사업' 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외 한글학교 교사 학위 취득과정 지원 사업과 관련한 교류 및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한글학교 교사의 전문성 강화, 교육·연구 기회 확대, 상호 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교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외대 총동문회,**

**2019년 동문 재외공관장 초청 간담회 및 송년모임**

한국외대 총동문회는 지난 12월 17일(월) 오후 7시, 외교부 전체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차 모국을 방문한 동문 재외공관장을 초청해 롯데호텔서울 37층 가넷스위트룸에서 '2018년 한국외대 동문 재외공관장 초청 간담회 및 송년모임'을 개최했다. 김용길 외교부 동문회장(정외85/동북아국장)은 귀한 자리를 마련해준 총동문회와 학교에 감사 표하며 외교부 동문회도 총동문회와 학교 발전을 위해 여러모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만찬 중에 모교와 총동문회, 외교부가 발전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제시됐으며, 이를 통해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했다.



**영어대학동문회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식**

우리 대학 영어대학 동문회(회장 홍진표)는 지난 2월 18일(월)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호텔 2층 국화룸에서 '2019년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전희원(96) 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동문회장 인사 및 결산보고, 차기 동문회장(11대) 선출, 공로상 시상,故 박명석 교수 추모 영상 상영,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동문회장 선출은 참석한 동문들의 만장일치로 윤용로(74) 코람코자산운용사 회장이 11대 동문회장으로 선출됐다. 11대 영어대학 동문회는 윤용로 회장을 중심으로 김종철(74) 수석부회장, 고승환(76) 골프회 회장, 박성호(83)·최복례(83) 사무총장, 김선경(86) 장학금추진위원장이 봉사할 예정이다.



**한국외대 총동문회, 2019년 신년인사회 및 자랑스러운 외대인상 시상식**

우리 대학 총동문회는 지난 2월 15일(금) 오후 7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9 총동문회 신년인사회 및 자랑스러운 외대인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자랑스러운 외대인상 시상식에서는 민경중(중국어 8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이 자랑스러운 외대인상을 수상하였으며, 자랑스러운 외대교수상에는 김현택(노어 74) 대외부총장, 특별 공로상에는 장인택(스페인어 76)과 최철식(무역 90), 이어 공로상에는 이희옥(스칸디나비아어 74), 정필모(아랍어 77), 곽태석(노어 77)이 선정됐으며, 이번에 신설된 프론티어상에는 유지원(중국어 11)이 선정되었다.



**2018 HUFSxHUFS 동문 멘토링 종료식 및 총동문회 장학금 수여식**

우리 대학과 총동문회는 지난 12월 21일(금) 서울캠퍼스 교수회관 식당에서 '2018 HUFSxHUFS 동문 멘토링 종료식 및 총동문회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날 HUFSxHUFS 동문 멘토링 종료식에서는 한 해 동안 진행된 동문 멘토링 각 팀의 멘토와 멘티가 만나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멘토링 진행 영상과 해외 멘토, 멘티들의 영상 메시지를 시청했다.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서울캠퍼스 3명, 글로벌캠퍼스 3명 등 모두 6명의 학생이 각각 15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받았으며, 2019년부터는 총동문회 장학금 수혜 학생 수가 더 늘어날 예정이다.



**동문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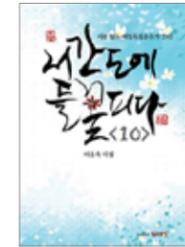
**아랍어과, 총동문회 신년회 및 아랍어과 동문장학금 수여**  
우리 대학 아랍어과 총동문회(동문회장 홍영표, 학과장 윤은경)는 지난 1월 14일(월) 양재동 엘타워에서 정기 총회 및 신년회를 개최했다. 아랍어과 동문 60명, 재학생 10여 명 등 모두 7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아랍어과 동문회장 인사와 실무진 소개, 아랍어과 스마트 도서관 건립기금 약정 보고, 향후 아랍어과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 등이 이뤄졌다. 또한 아랍어과 재학생 5명에게 아랍어과 동문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동문 장학금 지급을 하기로 약정했다.



**제 119 ROTC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우리 대학 제119 ROTC 총동문회(동문회장 김철한)는 지난 2월 27일(수) 오후 6시 30분, 육군회관 태극홀에서 2019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제 17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철한(영어, 21기) 회장 및 유남재(스페인어, 22기) 수석부회장, 구중재(경영, 24기) 상임부회장, 김종철(폴란드어, 30기) 사무총장 외 9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또한 정길해(스페인어, 20기) 제16대 회장에서 김철한(영어, 21기) 제17대 회장으로 회장직을 이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진 만찬에서는 한국외대 제119 ROTC 총동문회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하였다.



**이윤옥(일본어 82)**  
시간도에 들꽃 피다 10 (얼레빗 출판)



**석혜탁(중국어 07)**  
오늘이 가벼운 당신에게  
오늘의 무게에 대하여 (북스고)



**오창엽(영어교육 81)**  
영문법마스터 뽀뿌카드 (뽀뿌카드)



**최석환(국제통상 95)**  
수소사회-미래에너지 리포트 (머니투데이)



**성주엽(일본어통역 85)**  
나무편지 (생각하는정원)  
생각하는 나무이야기 (생각하는정원)



# Alumni News

## HUFS Alumni

### 인문

김영라 정치외교94  
김영한 한영석94  
김홍상 신문방송96

박범서 정치외교80  
김성규 신문방송87  
도재기 이법84  
최영환 신문방송85  
신지영 영어85  
주성원 신문방송89  
김종성 중국79  
정기용 영어95  
이진경 행정99  
김종구 정치외교77  
임정효 국제통상80  
우진형 컴퓨터공학83  
최동일 신문방송84  
고대훈 프랑스80  
김종식 정치행정전문(석)12  
송경진 영어85  
이종경 신문방송85

### 학계

### 정부기관

### 금융

### 공공기관

### 기업

### 기타

김주영 정치외교91  
변인수 중국어통번역89  
나영도 아프리카83  
안경덕 정치외교82  
양성필 영어85  
최용철 학기190  
이상덕 포르투갈79  
김재향 법학92  
김진혜 법학95  
박우근 영어93  
심재남 법학85  
이은정 정치외교96  
이주영 프랑스91  
정하경 한영97  
이창준 행정85  
김종열 이법85  
김대성 영어93  
김찬우 스페인91  
유정아 스페인96  
전성무 정치외교78  
권오승 물리08  
윤종태 아프리카85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 경무과 (교육)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실장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국장  
광주소방서 광주소방서장  
대구시 국제관계사자  
대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사법연수원 교수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외교부 영사서비스과장  
외교부 국립외교원 기획협력과 과장  
외교부 군축비확산담당관실 제재·수출통제팀장  
우정사업본부 전북지방우정청장  
제주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장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 산업진흥과 과장

아랍84  
말레이·인도네시아85

김성한 아랍84  
구홍도 말레이·인도네시아85  
신주현 경영88  
이기복 독일84  
장경중 영어86  
조일형 경제85  
안경찬 아프리카184  
주정도 프랑스85  
이종배 경제83  
임선형 경제85  
조영길 행정87  
김중춘 프랑스81  
박강욱 스페인82  
윤여필 경제91  
정덕래 스페인92  
최정화 아랍84  
최정석 스페인82  
안용혁 신문방송96  
양명승 경영87  
오병성 노이92  
이해익 법학84  
정재경 국제통상84  
엄성용 포르투갈89  
전지덕 영어85  
황정욱 국제통상90  
박상우 독일84  
이인수 스페인85  
이정순 법학87  
진용주 영어84  
여태수 영어84  
국광태 경영86  
권홍철 행정83  
김상구 중국86  
이광진 행정90  
권홍수 영어85  
문태경 법학92

IBK기업은행 부산·울산·경남그룹 부행장  
IBK기업은행 개살초비위원장  
IBK기업은행 양재동 기업성장지점장  
IBK기업은행 이천지점 지점장  
IBK기업은행 김서서버서신사센터장  
IBK기업은행 문래동 기업성장지점장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영혁신본부 총무인사실장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단본부 홍보실장  
기술보증기금 경기지역본부장  
기술보증기금 미래혁신연구소장  
기술보증기금 사회지점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경영지원본부 부부장(부사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비자재전자상거래실 소비자마케팅PM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투자기획실 투자총보팀 팀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토론토무역관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글로벌일자리실 실장  
대한체육회 인사총무부장 직무대리  
산업은행 심사평가부팀 심사2부 팀장  
산업은행 중소기업금융본부 사회지점 팀장  
산업은행 기업금융4실장  
산업은행 구조조정본부장  
수출입은행 경영사업1부장  
수출입은행 대전지점장  
수출입은행 비서실장  
신용보증기금 하남영업지점장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스타트업지점장  
신용보증기금 경주영업지점장  
신용보증기금 춘천영업지점장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혁신본부 경영지원처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기획처 부사장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마케팅사업처 부사장  
중소기업진흥공단 기획조정실 실장(2급)  
한국감정원 춘천지사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획실장

김남천 프랑스86  
김태운 일본85  
이병찬 일본84  
장찬욱 일본84  
우병국 영어97  
송중엽 아랍77  
정순화 영어86  
신상일 법학85  
이경철 법학88  
전진욱 영어99  
정정욱 법학97  
박진근 법학84  
서보영 국제통상86  
이기운 국제통상93  
정순화 법학84  
박한규 독일87

프랑스86  
일본85  
일본84  
일본84  
영어97  
아랍77  
영어86  
법학85  
법학88  
영어99  
법학97  
법학84  
국제통상86  
국제통상93  
법학84  
독일87

한국관광공사 미팅인센터비팀 팀장  
한국관광공사 일자리기획팀 팀장  
한국관광공사 테마상품팀 팀장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본부 교통안전연구개발원 자격관리처장  
한국국제교류재단 대외협력부 부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  
한국마사회 말산업교육부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심사부장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정책조사팀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준법감사관장  
한국석유공사 아시아사업처장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부장  
한국예탁결제원 글로벌서비스부 국제예탁결제팀장  
한국예탁결제원 국제펀드본부장  
한국환경공단 인재경영처 인사팀장

양태종 독일74  
김우성 스페인78  
윤종태 언어인지과학(박)87  
이희욱 중국80  
이환복 행정81

허용건 아프리카83  
박재호 컴퓨터공학86  
박철 법학84  
배강식 독일87  
서현덕 네덜란드86  
이상필 국제통상89  
이윤제 중국85  
김종식 경영81  
성백준 경제85  
윤은섭 아랍88  
이홍섭 스페인어통번역86  
이홍수 프랑스85  
최영식 인도75  
이강기 일본85  
박성철 경제86  
박한 일본82  
김계홍 국제경영02  
한영만 경영89  
윤상돈 법학91  
김신홍 법학83  
박관수 법학84  
배연수 행정90  
배효형 법학88  
성기춘 국제금융02  
유희준 수학90  
이봉찬 아랍81  
이희성 행정89  
전보현 말레이·인도네시아89  
전우승 경영정보88  
함병수 독일86  
황병선 일본89  
박진두 법학92  
이상호 영어83  
김경학 법학85

동아대학교도서관 겸 출판부장  
부산외국어대학교 기획처장 겸 정보보호센터장  
부산외국어대학교 글로벌인문융합대학장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장 겸 성균국연구소장  
영남대학교 기획처장

강정순 일본어통번역90  
이광순 태국82  
이석준 국제통상85  
우준욱 말레이(인도네시아)통번역87  
유병선 이란90  
강동만 이란86  
한승혁 국제통상89  
김태환 일본81  
정병기 영어83  
김진광 아랍어통번역88  
김진국 영어81  
이승현 행정90

일본어통번역90  
태국82  
국제통상85  
말레이(인도네시아)통번역87  
이란90  
이란86  
국제통상89  
일본81  
영어83  
아랍어통번역88  
영어81  
행정90

경남기업 부장  
교보생명 법인지원고객센터장(사무)  
교보생명 강남PZ 지점단 지점단장  
대원해운 이사  
대원기획 상무부  
동원 F&B 영업본부장(전무이사)  
롯데유통점 상무  
롯데유통점 상무 류류86 대표이사  
에버데인 영업본부장(부사장)  
트렌드마이크로 한국지사장  
하나투어 사장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 상무부

경남개발공사 사장  
바론리앤드 태백·황성·영월·평창·정선 지역위원장  
서울문화재단 경영기획실장  
서울문화재단 제휴협력실 홍보팀장  
여주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국무역협회 글로벌연수실장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사무장  
한국수입협회 회장  
한국표준협회 충남북부지역본부장

# Donation News

## HUFS Donation



**김덕술 삼해상사(주) 대표, 학교 발전기금 1억원 기탁**  
우리 대학의 힘찬 새해 시작을 알리는 2019년 첫 발전기금 기탁식인 '김덕술 삼해상사(주) 대표(일본어 81) 발전기금(스마트도서관 건립기금) 기탁식'이 지난 1월 4일 (금) 서울캠퍼스 본관 203호 이덕선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2019년 첫 기탁식의 주인공인 김덕술 삼해상사(주) 대표는 현재 일본어대학 동문회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약 1억 2천만원에 달하는 학교 발전기금과 장학금 기탁으로 학교 사랑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번 기탁식은 지난해 9월 김덕술 대표가 기탁한 학교 발전기금 1억원을 기념하는 행사였으며, 일본어대학 동문회 임원진과 내빈의 참석 가운데 이뤄졌다.



**재단법인 현마옥역재단 2019학년도 제9기 장학금 수여식**  
재단법인 현마옥역재단 2019학년도 제9기 장학금 수여식이 2019년 2월 28일(목) 우리 대학 서울캠퍼스 교수회관 강연실에서 열렸다. 이날 수여식에는 이성희 현마옥역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현마산업 이준섭 대표이사가 참석했으며, 본교에서는 김인철 총장, 김학태 재무·대외부총장, 문재원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재원 대외협력처장, 김봉철 학생·인재개발처장(서울), 김수완 학생·인재개발처장(글로벌)을 비롯해 장학생과 학부모가 참석했다. 올해로 제9기 장학금이 선발돼 연 인원 81명에게 장학금이 지급됐으며, 누계 지급액은 5억 6천만원이다.



**윤윤수 FILA Global 회장, 학교 발전기금 60만 달러 기탁**  
지난 1월 29일(화) 윤윤수 FILA Global 회장(정치외교 66)이 우리 대학 발전기금으로 미화 60만 달러, 원화 기준 약 6억6천만원을 기탁했다. 이는 2018년 10월 거행된 스마트도서관 기공식 리셉션 당시 윤윤수 회장이 선언한 학교 발전기금 총 20억원 약정 중 일부를 2019년을 맞아 실천한 것이다. 윤윤수 회장은 지난 발전기금 약정에서 "성공의 완성은 나눔이라는 평소 신조를 실천하게 돼 기쁘다. 모교의 글로벌 인재 양성과 후배들의 학업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학은 미래 발전 전략 구동을 위한 다방면의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부산동문회 윤성원 고문, 2019학년도 부산동문회 후배사랑 장학금 전달**  
2019학년도 부산동문회 후배사랑 장학금 전달식이 2019년 3월 4일(월) 우리 대학 부산동문회(고문 윤성원, 영어교육 73/회장 안종량, 태국어 76)가 '2019학년도 부산동문회 후배사랑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오철환 부산동문회 사무국장(정치외교 83)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전달식은 윤성원 고문의 2019학년도 장학금 전달을 기념하는 행사로 20여 명의 부산 동문과 학교 관계자, 부산동문회 장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윤성원 고문은 높은 학구열과 훌륭한 학업 태도로 타의 모범이 된 김도연(영어통번역학 16), 김유진(터키아제르바이잔어 16), 박정연(일본언어문화 18), 송민경(경제 18), 정수미(이탈리아어통번역학 18) 부산 연교 학생에게 부산동문회 장학금을 전달했다.



**황인희 인진건설(주) 대표, 학교 발전기금 1억원 기탁**  
지난해 12월 31일(월), 황인희 인진건설(주) 대표가 우리 대학 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기탁했다. 황인희 대표는 우리 대학과의 깊은 인연을 토대로 2018년 7월 학교 발전기금 3천만원을 기탁한 적 있으며, 연말을 맞아 이해 다시금 우리 대학 발전과 글로벌 인재 양성에 성원을 보내왔다. 소중한 재원을 선뜻 내어준 황인희 대표의 귀중한 뜻에 따라 우리 대학에서는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로 보답할 것을 약속했으며, 황인희 대표의 나눔과 배려 정신을 학생들에게 널리 전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전성철(이탈리아어 76) 강의실 헌정식**  
지난 3월 8일(금) 우리 대학 본부 225호에서 전성철(이탈리아어 76, ㈜세이브 대표이사) 강의실 명명식이 진행됐다. 전성철 대표는 서양어대학 이탈리아어과 전성철장학금 명목으로 현재까지 약 1억원을 기탁했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우리 대학에서는 귀한 재원을 희사한 기부자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본관 225호 강의실을 헌정했다. 이날 헌정식에는 김인철 총장, 김학태 재무·대외부총장, 김봉철 서울 학생·인재개발처장, 이재원 대외협력처장, 이탈리아어과 김시홍 교수, 최병진 학과장, 이탈리아어과 박관수 동문회장, 이탈리아어과 재학생 및 전성철 장학생, 발전협력팀 직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Donation News

## HUFS Donation

2018. 12. 1. ~ 2019. 2. 28.

성명	소속	약정합계(원)
고광현	서양어대학 포르투갈어과 81	1,200,000
고해섭	법학전문대학원(석) 11	3,600,000
공병훈	법학전문대학원(석) 11	3,600,000
구양근	일본대학원 중어중문학과(박) 80	3,000,000
권성욱	중국어대학 중국어과 79	1,200,000
김대회	법학전문대학원(석) 11	3,600,000
김미경	서양어대학 포르투갈어과 84	5,000,000
김성일	중국어대학 중국어과 84	1,000,000
김성현	아시아언어문화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89	10,000,000
김순모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81	3,000,000
김용빈	서양어대학 포르투갈어과 89	1,000,000
김유현	법학전문대학원(석) 10	3,600,000
김자영	법학전문대학원(석) 11	3,600,000
김형식	서양어대학 독일어과 98	1,500,000
박인나	통번역대학원(석) 한노과 07	500,000
박해철	통번역대학 아랍어통번역학과 88	1,000,000
백승아	사범대학 한국어교육과 86	1,000,000
송민형	법학전문대학원(석) 11	3,600,000
신동협	법학전문대학원(석) 13	1,500,000
신아람	법학전문대학원(석) 11	1,200,000
신인선	법학전문대학원(석) 11	3,600,000
양성현	서양어대학 포르투갈어과 88	1,200,000
엄용식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83	2,000,000
오상훈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81	2,000,000
오주연	영어대학 EIC학과 17	200,000
유근혁	법학전문대학원(석) 11	3,600,000
윤성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73	10,000,000
이주영	국제지역대학 국제스포츠레저전공 10	1,000,000
이지현	법학전문대학원(석) 11	3,600,000
이현석	법학전문대학원(석) 11	3,600,000
이형대	상경대학 경제학과 86	1,000,000
이호선	인문대학 사학과 86	1,000,000
임한준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81	5,000,000
전별	법학전문대학원(박) 15	3,600,000
정희웅	사범대학 한국어교육과 10	240,000
조원균	서양어대학 프랑스어과 92	1,200,000
천지민	자연과학대학 환경학과 03	3,000,000
한의섭	법학전문대학원(석) 09	3,600,000
한현희	통번역대학원(박) 한노전공 11	1,000,000
강덕수	외대교수	30,000,000
고영훈	외대교수	500,000
곽새라	외대교수	600,000
김동환	외대교수	1,000,000
김민정	외대교수	5,150,000
노명환	외대교수	2,000,000
박성희	외대교수	300,000
박희호	외대교수	3,000,000
윤기현	외대교수	1,800,000
윤은경	외대교수	2,000,000
정창욱	외대교수	900,000
김민병	명예교수	5,000,000
박희영	명예교수	10,000,000
이강희	외대직원	1,000,000
황인희	학부모	100,000,000
(재)외대동문장학회	동문단체	9,000,000
법학전문대학원 5기	동문단체	300,000
수학과 총동문회	동문단체	3,200,000
외대경영대학동문회	동문단체	1,000,000
외영78동기회	동문단체	3,000,000
우리는행동문회	동문단체	10,000,000
한국외대 재직직원동문회	동문단체	407,000

성명	소속	약정합계(원)
한노과 39기 동문회	동문단체	200,000
지식출판원	부설기관	191,958,430
한국외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부설기관	5,829,170
외대비전교회	교내단체	1,000,000
외대재직직원장학회(씨앗)	교내단체	13,400,000
ARS	기타(개인)	9,000
문상호	기타(개인)	5,000,000
박상선	기타(개인)	200,000
차상석	기타(개인)	20,000,000
(주)도픽스	기타(기업)	1,000,000
(주)세진유통	기타(기업)	100,000
(주)우리은행	기타(기업)	800,000
Acushnet Holdings Corp.	기타(기업)	221,767,820
FILA USA, Inc	기타(기업)	223,300,000
GS리테일	기타(기업)	10,000,000
부성서점	기타(기업)	15,000,000
새한산업(주)	기타(기업)	3,360,500
에코세이프티	기타(기업)	5,505,000
원일전선판매(주)	기타(기업)	1,713,800
익명	기타(기업)	30,000,000
주식회사 현대홈쇼핑	기타(기업)	20,000,000
카피나라	기타(기업)	20,000,000
윌라코리아(주)	기타(기업)	221,560,000
(사)아름다운공동체	기타(단체)	30,000,000
(재)우석문화재단	기타(단체)	3,000,000
(재)홍원재단	기타(단체)	18,000,000
광주시민장학회	기타(단체)	1,500,000
남정장학재단	기타(단체)	7,500,000
더라이트즌즈	기타(단체)	1,410,500
두산연강재단	기타(단체)	10,081,500
롯데장학재단	기타(단체)	21,515,000
미래에셋학원주재단	기타(단체)	55,000,000
미래의동반자재단	기타(단체)	3,360,500
미래인재육성재단	기타(단체)	3,871,500
백미장학금	기타(단체)	1,500,000
비오스장학재단	기타(단체)	3,600,000
삼성복지재단	기타(단체)	153,730,952
서울장학재단	기타(단체)	7,500,000
성음문화재단	기타(단체)	2,000,000
송화재단	기타(단체)	4,000,000
신라문화장학재단	기타(단체)	1,200,000
아산사회복지재단	기타(단체)	41,423,500
엘트웰민초장학재단	기타(단체)	3,360,500
연재장학재단	기타(단체)	4,000,000
외대교회	기타(단체)	30,000,000
인촌기념회	기타(단체)	3,360,500
일주화술문화재단	기타(단체)	3,360,500
재단법인 김준기재단	기타(단체)	16,802,500
재단법인 대은강완석장학재단	기타(단체)	4,000,000
재단법인 문숙장학재단	기타(단체)	2,400,000
재단법인 연당장학회	기타(단체)	2,000,000
재단법인 인촌	기타(단체)	1,500,000
재단법인인촌민장학회	기타(단체)	6,721,000
정수장학회	기타(단체)	32,455,500
포스코청암재단	기타(단체)	14,754,000
하영호장학재단	기타(단체)	4,500,000
한국지도자육성재단	기타(단체)	6,360,500
해성문화재단	기타(단체)	3,368,500
현대차정몽구재단	기타(단체)	15,976,500
현마육영재단	기타(단체)	22,182,000

# 한국외국어대 학교발전기금 약정서

기 부 인	성명(상호)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인 적 사 항	근무처		부서/직위	
	연락처		E-mail	
구 분	동문	학과명	입학 연도	년
	비동문			
용도		<input type="checkbox"/> 한국외대 미래전략기금(한국외대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됨니다) <input type="checkbox"/> 장학금 : 대학 과(부) 또는 장학명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연구 <input type="checkbox"/> 시설(건축 및 기자재 또는 도서관) <input type="checkbox"/> 학교발전 : 대학 과(부) <input type="checkbox"/> 기타지정 :		
약정(기부) 총액		<input type="checkbox"/> 현금 원	<input type="checkbox"/> 현물	
납부 기간 및 방법	일시납	<input type="checkbox"/> 1회 완납(금 원) 년 월 일 납부(예정)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6-05-031630 한국외국어대학교		
	분납 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월납부액 ( 원, 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이체일 : <input type="checkbox"/> 15일 <input type="checkbox"/> 말일		
	분납 급여공제 (교직원용)	<input type="checkbox"/> 월납부액 ( 원, 회) 사 번 ( )		
기부 권유자		성명 : 연락처 :	*기재하신 사항은 참고자료로만 사용됩니다.	

\* 위 기부(약정)서를 작성하신 후 팩스(우편)로 보내주시거나 홈페이지(fund.hufs.ac.kr)를 통해서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한국외국어대학교 발전기금을 약정(기부)합니다.

20 년 월 일

기부(약정)인 : (서명)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는 발전기금의 약정 및 기부처리,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예우, 기부내역 관리, 기부행사 안내 및 홍보의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주택주소 또는 직장주소), 연락처(자택 전화번호 또는 직장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자동이체 시), 사번(급여공제 시)  
 • 선택항목 : 위 필수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기부자 정보에 대한 기록 보존이 필요한 시기까지 보관됩니다.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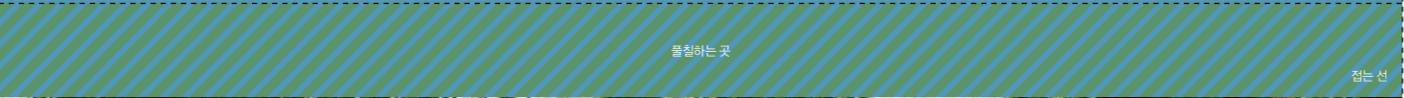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기부금 약정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기부자 예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기부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필수항목 미 작성 시 기부처리 불가)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필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기부입력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필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기부행사 안내 및 홍보를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선택)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우리 대학에서 보내드리는 소식지,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 발송 및 연락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성명, 학과, 학번,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발송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제1의 글로벌 대학으로서 개교 65주년을 맞이한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취 거부 연락 주실 곳  
발전협력팀 전화 : (02)2173-2756 이메일 : hufs5@hufs.ac.kr



접는 선

보내는 사람  
\_\_\_\_\_  
\_\_\_\_\_  
\_\_\_\_\_  
□□□□□

우편요금  
수취인 부담  
발송유효기간  
2018.9.2~2020.12.27  
동대문우체국  
제40122호

받는 사람  
한국외국어대학교 대외협력처 발전협력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0 2 4 5 0



# HUFS-TAD Global Leader Program

글로벌 시장을 내 손 안에 펼치고 싶습니까?  
해외파견 인력을 위해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십니까?

- 한국외대의 독보적인 외국어-지역학 교육 프로그램과 국내 최대 기업의 글로벌 인력양성 노하우를 가진 TAD가 결합하여 귀사에 최적의 인력 육성 솔루션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글로벌 리더의 필요 역량 기반 교육 프로그램
- 해외 주재원, 법인장 파견 예정자, 해외지역전문가 교육
- 글로벌 리더의 필요 역량 진단, 양성



문의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사회교육원 031-330-4808~10  
(주)태드솔루션 02-594-2022



**HUFS**

서울캠퍼스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TEL. 02.2173.2114  
글로벌캠퍼스 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TEL. 031.330.4114